대학혁신지원사업

new Start 배재 AI·SW중점대학

2020-1 배재수업에세이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 대학교육혁신원 Institute for Teaching & Learning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 지원사업

new Star 배재 AI·SW융합대학

2020-1 배재수업에세이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 대학교육혁신원 Institute for Teaching & Learning

목차

1. 거대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 게임공학과 조민수
[객체지향 기초프로그래밍Ⅰ / 게임공학과 박동원 교수님] ····· 1

2. 특별한, 나만의 수업 / 외식경영학과 오수민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 / 미디어콘텐츠학과 전영식 교수님] ····· 4

3. 세상을 담는 시야를 밝힌 화면 속 만남 / 공공인재학부 임지예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행정학과 이혜경 교수님] ····· 8

4.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수업, '예술로 읽는 세계사 / 가정교육과 박민이
[예술로 읽는 세계사 / 연극영화학과 이봉지 교수님] ····· 12

5. 내 영어실력을 심폐 소생시켜 준 '의사' 소통영어 / 레저스포츠학과 김소정
[의사소통영어 / 기초교육부 박옥희 교수님] ····· 16

6. 깊은 생각이 있는 수업 / 유아교육과 이혜원
[전공의 이해 / 유아교육과 이진화 교수님] ····· 18

7. 교육,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 유아교육과 김규빈
[교육심리 / 교직부 이현주 교수님] ····· 23

8. 한계와 발전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이희준
[영어학개론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조영우 교수님] ····· 25

9. WHO AM I? JUST Me: 진정한 나와의 만남 / 유아교육과 차현주
[자기성찰 글쓰기와 토론 / 글로벌교육부 이영조 교수님] ····· 28

10. 나의 첫 대학 수업, <TESOL 개론>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김채린
[TESOL 개론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조영우 교수님] ····· 33

11. 새로운 교육, 변화하는 사회, 소통하는 사람들 / 피아노과 신소정
[교육사회 / 교직부 구혜정 교수님] ····· 35

12. 내 시야를 넓혀주고 양분이 되어준 수업 / 가정교육과 임윤희
[주거 원리 / 가정교육과 변현진 교수님] ····· 38

13. 점에서부터 그림까지 / 의류패션학과 김세이
[패션CAD / 의류패션학과 안진현 교수님] ····· 41

14. 스페인어를 향한 첫걸음 /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김주영
[초급 스페인어강독 /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유왕무 교수님] ····· 43

15. 궁금하고, 기대되는 영유아발달수업 / 유아교육과 김운정
[영유아발달 / 유아교육과 백경순 교수님] ····· 46

16. 부족함이 없었던 수업 / 실버보건학과 최민영
[자원봉사론(서비스러닝) / 실버보건학과 임진섭 교수님] ····· 49

17.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의 목표를 세우자 / 항공운항과 오현지
[객실서비스연구사례 I / 항공운항과 조주은 교수님] ····· 52

18. 꿈에서 현실 가능한 주거 수업 / 가정교육과 이아름
[주거 원리 / 가정교육과 변현진 교수님] ····· 56

19.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인간이란 개체까지 / 생명공학과 임수현
[생명공학 기초생물 I / 생명공학과 채순기 교수님] ····· 59

20.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 심리상담학과 유시현
[대인관계심리학 / 심리상담학과 정재범 교수님] ····· 61

01

거대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2020-1학기 최우수상 / 게임공학과 조민수

저는 잔여 전공학점이 6학점 밖에 남지 않은 게임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수많은 전공과목을 수강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공수업과 실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비례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기는 한데...” 라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 데, 배재대학교에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과 양질의 강의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공학과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준이 높은 만큼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손으로 두들겨보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1은 컴퓨터화면과 캠화면을 동시에 녹화한 동영상 강의로 배재대학교 LMS포털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촬영하지 않고, 10분 간격으로 짧게 끊어져있는 동영상강의는 해당 문제와 개념이 생각 안날 때 다시 찾아보기 쉬웠습니다. 또한 해당과목을 교수하시는 박동원 교수님께서는 혼자 말씀하시지 않고 수업조교와 문답식으로 녹화동영상수업을 진행하셨으며 강의실의 화이트보드까지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그 수업장소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문산에 갔다가... 거대한 폭포를 만나 떨어졌습니다!”
녹화 동영상 강의 중에 박동원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주에 산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전에 폭포가 있는 산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란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시 일어난 후에 다시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은 폭포를 만나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작은 폭포에서 또 한 번 떨어진 이후에야 커다란 폭포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중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풀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극으로 이해한 이중반복문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론 수업 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실습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본인의 수준이 아닌, 옆에 앉아있는 조교의 수준에 맞춰서 실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와 수준으로 실습을 동영상과 동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아이에게 조립용 로봇 장난감을 사주면 어른도 쉽게 갖고 놀지 못하는 장난감을 금세 다루고는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로봇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만들고 싶어 들어온 게임공학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컴퓨터와 실제 대결하는 3,6,9 게임을 만들

고, 야바위 게임을 만들고 확률과 난수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해당 수업은 도전적 추진력을 자극시켰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369게임 만들기', '야바위 게임 만들기', '베스킨라빈스게임 만들기' 같은 게임과제를 던져주셨는데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업 중 얘기한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낼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박동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과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새벽 4시가 되어도 문제에 관련해 대답을 해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풀이 죽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인성역량에 포함되는 자아존중, 책임감 지성역량에 포함되는 논리적 분석력, 통합적 사고력, 창의융합력, 수행역량에 포함되는 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적 수행능력, 도전적 추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역량과 수행역량에서 가장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재대학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이 없으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직전에 봤던 동영상 강의의 수업내용을 다시 복습해야 했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활용력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에는 새벽에는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12시간도 코드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 아니면 지금껏 무언가 3시간 이상 집중해본 적이 없었는데 박동원 교수님께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격려 해주시신 덕분에 그리고 게임을 만든다는 흥분감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이나 과제를 끝내고 나면 '베스킨라빈스 게임(31을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 만들기가 있으면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34가 나오면 패배하는 변화 된 베스킨라빈스 게임으로 바꿔보기, '369게임'에서는 3,6,9에서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닌 "홀수"일 때도 박수를 치도록 하는 게임으로 바꿔보기, 코드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재위치 시켜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조금씩 자기 것으로 바꿔서 만들어보면 논리력이 향상 될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도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배재대학교의 지성역량이 크게 향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논리적 분석력이, 게임을 더 재미있게 바꿔보고 싶다는 작은 욕심에 창의융합력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게임을 더 재미있게 바꿔보고 최적화하려 노력했더니 자연스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지난 4년간 항상 누군가에게 배우기만 했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뼛속까지 익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고 AI ·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안항 교육프로그램[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1 수업을 통

해서 드디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첫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성역량 중 하나인 자아존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거대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타전공 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설명, 항상 새로운 게임예제, 학생과 같은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교수님의 모습은 마치,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거대한 폭포 같습니다.

02

특별한, 나만의 수업

2020-1학기 우수상 / 외식경영학과 오수민

1. 추천하는 좋은 수업의 내용이 도움이 된 점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라는 수업은 방송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을 배열하여 차례대로 배웠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통제하는 행위인 '편성'에 대하여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있듯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나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르는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전달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다. 세 번째로 대상으로 하는 시·청취자의 특성에 따른 '대상에 의한 분류'인데 그 시간대에 어떤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말연속극 드라마의 경우, 8-9시 시간대에 보는 시청자들은 '30-50대 주부들'에게 해당된다. 네 번째는 '기능에 의한 분류'인데 보도나 교양, 오락으로 3등분 하여 정보나 교육을 첨가시킨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지루하지 않도록 첨가하여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평소에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는 편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효과음이나 사람들이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게임이나 흥미가 될 만한 것들을 넣어준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각각의 4가지 유형별로 내용, 형식, 대상, 기능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라디오, 텔레비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방송자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광고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라디오는 법에 대한 권한과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다. 반대로 텔레비전은 시각적인 면에 큰 장점이나 법에 대한 권한이나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다른 면에서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관심 있게 봤던 분야이기도 하며,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게 봤었던 수업이었다.
미디어라는 다른 전공의 지식을 알게 되어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방송사마다의 특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가지의 프로그램만 하는 곳도 있었으며,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보여주면서 수신료를 내는 것, 공영방송사, 지방방송사까지 등 더욱이 관심 있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

2. 좋은 수업에서 교수님의 좋은 수업 방법

비 대면으로 강의하여서 한주에 2개씩 30-40분 강의 영상을 올리는 방식이었고, LMS를 이용

하여 한 화면에 PPT 자료 수업과 교수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여금 수업방식이 진행되었다. 다른 강의의 경우에는 자료화면에 목소리만 들리도록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수업은 화면에 교수님의 얼굴이 하단에 보이도록 화면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실시간인 것처럼 강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 중간 이 부분의 파트에 해당하는 수업은 꼭 알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 보는 용어도 있었고, 익숙한 용어들도 있었는데 하나의 단어에서 다양하게 비슷하게 조금씩 바뀌어서 구성된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꼈었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전공 용어가 나오면 타과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하여금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옛날 동화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등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방송과 관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업들을 간간이 소개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나운서, 피디, 감독 말고도 다양한 방송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자신의 과와 관련하여서 방송 쪽으로 직업을 생각해보는 것도 추천해 주셨다. 이런 직업들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수님을 찾아와라,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디어 콘텐츠 과의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직 진로에 대해서 길을 못 찾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것에 감사하다 생각한다.
수업을 하다가도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는데 이런 점에서도 다른 교양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수업방식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든다. 앞서 말했듯이 대면 수업이 아닌 비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강의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라는 수업이 다른 교양과목과 수업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전영식 교수님처럼 다른 교수님들도 유익하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3. 자신이 수업에 참여한 노력과 자신만의 학습방법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들었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이어폰을 귀에 꼽아 최대한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업을 들었는데 두 가지의 강의가 있었다면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들었고, 집중이 잘 되는 날에는 두 가지의 강의를 연속해서 들었다. 반면에 집중이 되지 않은 날에는 나만의 쉬는 시간을 정하여 중간에 10-20분 쉬고 그다음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의 시간표대로 시간에 맞추어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는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2-3주 동안은 조금 힘들었지만 익숙해지자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여러 선택에 있어서 잘 선택한 것 같아 뿌듯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 수업은 전공과 관련된 책 대신에 수업하시는 PPT 자료 수업과 동일한 강의 프린터를 올려주시는데 그런 점에서 뒤로 미루고 않고 항상 프린터를 뽑아서 수업 준비를 미리 했던 것 같다. 귀찮더라도 대면 수업을 할 때도 항상 해왔던 부분이라 몸이 먼저 이끌었던 것 같다. 물론 나의 성격상 계획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올려주시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다.
대부분 교양과목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외우는 것이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 최상의 좋은 방법은 외우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다. 나도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고 그 뒤에 외우는 편이다.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던 부분들을 읽어보고 다시 정리한다. 헷갈리거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빈 종이에 마인드맵처럼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말하면서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거나, 사물과 연관 지어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다. 그런 점이 집중력을 올려주면서 다른 공부 방법보다 나에게 가장 맞는 학습방법 같다.
필기 부분에서는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이거나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색깔 있는 형광펜으로 체크 표시를 해두었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부분에서는 다른 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는 A4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총 공간을 4칸으로 만들어서 형광펜으로 체크 표시 해두었던 것들을 우선 먼저 적어서 정리하였다. 또한 간단히 필기 보충을 해야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자리에 검은색 펜으로 필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눈에 한눈에 보이는 것보단 4칸으로 나눠 각기 중요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공부 방법이었다.

4. 좋은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앞서 말했듯이 미디어와 콘텐츠는 방송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보는 시점, 역할과 종류 등에 대해서 배웠다. 방송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궁금했었던 방송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직접적인 면보다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면이 더욱이 효율적이다, 조직을 위해서는 각자의 목표와 달성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 공통의 숙제가 돼버린 셈이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각자 맡아야 한다.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단순한 아이디어뱅크를 통해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개발과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편히 보고 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하나의 방송을 만든다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을 경험한 것 같아서 더욱이 의미 있는 것 같다.
또한 교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고 하셨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시작해서 남녀노소가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정보, 바로 ‘소통’이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기 위해 나와 상대방이 전화 버튼을 눌러야 통화가 가능하듯 이의 둘의 관계가 있듯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재미요소를 줄 수 있는지 등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생각할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유익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시청자들이 의견을 내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어쩌면 방송과 관련된 궁금했던 점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갔지만 그이외의 것들도 같이 부가적으로 얻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이외의 것들이라면 소통이란 단어에서도 다양한 소통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걸 수업을 통해 깨달았고, 내가 나중에 취업을 나가서도 소통이란 단어를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을 알았다. 사람과 사람 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준 단어이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중의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도망치지 않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접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말하며 면접관과 의사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이 이끌어나가게 할 것이다.

5. 추천하는 수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그 외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학교의 5대 핵심 역량은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알게 된 경로는 채움 비교과 시스템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강의계획서에서 나와 있는 5대 핵심 역량이 퍼센트 별로 그 수업에 해당되는 각기 다른 역량들이 필요한 부분에 속해 있었다.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의 수업은 인성, 감성, 소통이 가장 높았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타인과 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생기는 작은 의견 충돌부터 시작으로 해결을 하기 위함이 해당된다. 알바를 통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학교에 들어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 직장 생활을 다니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역량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역량 정의들 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됐었던 것은 '감성'과 '소통' 역량 두 가지이다.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하여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말과 공감되는 부분이 큰데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직·수평적인 관계가 개방되어야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뤄지는 일이 많은데 어쩌면 평생을 달고 가져가야 할 문제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전달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단어들이었고 나 또한 이 수업을 통해서 역량의 배울 점과 내가 더 발전해야 하는 점을 알아갈 수 있었다.

03

세상을 담는 시야를 밝힌 화면 속 만남

2020-1학기 우수상 / 공공인재학부 임지예

[국제이주? 난민? 그거 좀...] (나의 변화)

친구들에게 국제이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당시, 대다수가 보인 반응이다. 사실 나 역시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는 국제이주에 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아마 미디어에서 이주민에 관한 편향된 콘텐츠를 자주 접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정작 국제이주의 내밀한 사정이나 필요성에 관해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런데 내가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통해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 내 사고의 큰 변화이기도 하다. '잘 모르는 것을 무턱대고 배척하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비판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강의를 듣기 전의 나는 국제이주가 그저 난민, 이민 정도의 이슈만을 포함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선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부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거기다 비호 신청자, 밀입국 이주자, 인신매매, 개발 난민 등 각 상황에서 난민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했다. 강의를 들으며 새삼 내가 난민, 국제이주 문제에 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느꼈다. 난민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두려움에 갇혀 여태 그들을 비딱한 시선으로만 바라본 것이었다. 물론 수업 후에 그들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들을 비난하는 행동은 지양하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점도.

[수요일 오후 두 시, 우리의 약속]

(수업사례) 첨부파일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메신저 대화(질문) 첨부 했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에 들은 전공 중에서 실시간 강의를 한 과목은 이 과목뿐이었다. 실시간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시에 이루어졌는데, 초반에 이를 잊고 있다가 강의 시작 10분 전에 급하게 화상 강의 방에 들어갈 준비를 한 적도 있었다. 단 한 번 그런 이후에는 아예 알람을 맞춰두고 여유롭게 준비했다! 화상 강의는 학생들의 발표와 교수님의 피드백,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나도 발표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지난 학기보다 수업 이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일 것이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시고, 발표에 관한 질문 또는 교수님 피드백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새로운 수업 방식이 어색해서였을까, 대면 강의 때보다 질의 응답률이 저조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는 교내 카페의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걸기도 하셨다. (지급은 기말 대면 시험 날 이루어졌다.) 더불어 메신저 단체 채팅방도 개설해주셨다. 그래서 수업 후에도 편히 질문하고 교수님의 답변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것이 수업 내용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특히 나는 교수님의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다! 교수님의 답변을 받은 후 내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수업 참여 노력과 학습 방법)

사실 이번 과목은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걱정한 과목 중 하나였다.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교재에 두툼한 양의 논문까지. “일단 이 많은 양을 시험 전에 다 읽고 이해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학기 초반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기억이 난다. 특히, 가볍게 훑어본 교재 속에는 생소한 단어, 국가 간의 긴밀한 경쟁, 권력자와 아닌 자의 은밀한 경쟁 등의 무거운 내용이 담겨있어서 지레 겁을 먹었다. 하지만 뭐든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지 않던가. 이런 간단한 법칙이 난제를 푸는데 더 중요한 법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우선 필기한 수업 프린트 자료를 읽었다. 같은 주제에서 항목이 나뉠 경우, 시각적인 구분이 가능하도록 밑줄을 그었다. 그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남겼다. 그리고 교재를 펼쳐 해당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았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주차의 수업 강의 녹화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대부분 궁금증은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가끔 이런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해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다. 처음에는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물론 교수님은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질문을 보내는 데만 이틀을 고민하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망설인 시간이 민망할 정도이다. 앞선 과정을 통해 내용 이해가 끝나면 내 의견을 덧붙여 본다. 학자들의 의견, 여러 가지 현상, 정의 등에 관한 ‘내’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는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내 의견을 덧붙인 부분의 수업 내용은 더 오래 기억에 남아서 그 수업에 관한 일종의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그 자체로 잊지 못할 경험도 있다. 바로 교수님 수업의 묘미인 ‘발표’이다. 두 명씩 짝지어 발표 순서를 정하고,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을 정해주시면 한 조인 두 사람이 각자 파트를 나누어 발표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때, 앞 조까지는 책 내용에 관한 발표였는데 우리 조는 논문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수업 공부하듯 차례대로 발표 자료에 넣을 내용을 표시하고, 추가 조사할 부분은 따로 체크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후 그것을 토대로 PPT를 만든 후 발표 시뮬레이션을 하며 대본을 짰다. 대본을 만드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매끄러운 발표를 위해서는 한 번쯤 써보기를 추천한다. 발표 중 내용을 순간적으로 잊어 당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물론 대본은 어느 정도(발표 중 4번 정도 보게끔)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중간고사 오픈북 시험이다. 기간이 일주일(서술형)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교수님께서 답안 작성을 두 페이지 내외로 제한하셨다. 미사여구를 빼고 최대한 핵심적인 말만으로 답안을 작성하라는 의미이셨다. 그래서 답안의 초안을 작성한 후 분량 조절을 위해 말을 다듬고 정말로 들어가야 할 말이 아니면 과감히 뺐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낯설고, 혹시 다른 말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다. 하지만 분량을 맞추고 보니, 내가 평소에 쓰던 문장보다 훨씬 깔끔했다. 그리고 핵심이 눈에 바로 들어와서 보기도 편했다. 나는 무심코 반성했다. 여태 글을 너무 가볍게 쓴 것이 아닐까? 어쩌면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을 담은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임을 느꼈다.

[행운은 운명이 아니야. 나비효과지.] (수업 내용에서 받은 도움)

‘행운은 운명이 아니다.’ 이제는 내 좌우명이 된 말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내 좌우명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번 방학 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하 한능검)을 치고 난 후이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것이라서 쓰기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 그런데 국제이주 강의 이야기

에 갑자기 웬 한능검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경험을 꺼낸 이유는, 이번 한능검 공부를 할 때 생각지 못하게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과목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한국사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중 근현대사 부분은 그다지 자신이 없었다. 개항이 이루어진 시기의 많은 조약, 일제강점기의 여러 독립단체. 외워도 외워도 헷갈려서 다른 부분보다 정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찰나에 익숙한 단어가 보였다. '명동성당' 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 저 성당 내가 발표한 부분에 등장하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든 것이다. 급하게 발표 자료를 켜서 찾아보니,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에 관해 담겨있는 PPT에 정말로 명동성당 이야기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94년과 95년에 각각 외국인 노동자/연수생의 농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의 농성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보상을 약속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가 명동성당임을 떠올리며, 관련된 역사적 지식을 익혔다. 특히 이민정책은 정부의 성향과도 연관 있어서 대통령 업적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 정말로 생각지 못한 '나비효과' 가 일어난 것이다. 이후 나는 이번에 좋은 점수로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은 것이 합격 여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꺼리던 현대사 부분을 이렇게 즐겁게 공부한 것은 이 수업 덕분임이 분명하다. 항상 '내겐 왜 행운이 안 오는 걸까.' 라며 남을 부러워하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행운은 단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올 수 있는 나비효과' 임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기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대학교에 진학하며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PPT 발표이다. 악명 높은 조별과제는 무서웠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PPT 발표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전공과목의 PPT 발표 과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예전부터 내 PPT 자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마음은 자료를 독창적이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막상 만들고 보면 너무 딱딱한 PPT가 되는 것이다. 이후 학교에서 주관하는 PPT 강의에 참석하려 했는데, 번번이 시간 때문에 놓쳐서 정말 아쉬웠다. 그래도 이번 수업의 발표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PPT를 보면서 내 PPT 방식에서 부족한 점, 내가 배워야 할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글자를 나열하기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픽토그램이나 표식을 이용하기. 둘째, 각 내용 간의 인과관계가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애니메이션 등의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기. 등을 느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므로, 이번에 알게 된 효과적인 자료 만드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노력할 것이다.

[나누고 섬기며, 내게 남은 것들] (우리대학 핵심역량 상승에 받은 도움)

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으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눔과 섬김' 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누어야 한다. 새롭게 우리의 가족이 된 외국인들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한국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유입을 막으려 하지만, 외국 인력을 원하는 기업은 여전히 너무나 많기에. 또한, 섬겨야 한다.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구제 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봉사나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느끼게끔 말이다. 여태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느낌만 받았었다. 그런데 이 과목을 공부하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나눔과 섬김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예를 들어, 법으로 실현되는 나섬은 오히려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감성 영역과도 이어진다.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을 수용하며 함께 살아갈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감성의 실천 아닐까?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항상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 화상수업과 발표를 통해서! 발표 준비, 발표, 피드백, 질의응답, 발표

자료 공유 등. 모든 순간이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뜻깊은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 몇 날 며칠 인터넷을 헤매고, 처음 가보는 해외 사이트와 해외 논문까지도 찾아보았다. 이제는 과제 수행에 해외 사이트가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인성 아닐까. 같은 시각에 화상 수업에 모이자고 약속하고, 강의에 참여한 모든 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른 학생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각자 노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의는 정말 뜻깊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것은, 내 꿈과 관련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내 꿈은 국가직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소양에는 협업, 정보 분석 능력과 조합 능력, 기계 활용 능력, 사색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이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탐색, 발표 과정, 내 의견을 정리한 과정, 발표 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예전보다 나은 내가 되었다는 뿌듯함은 남은 길을 기꺼이 걷도록 편안한 신발이 되어 준다. 언제나 꽃길일 수는 없다. 반대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자갈밭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길이든 '성장'이라는 튼튼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싶다.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것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배려가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경험과 강의 추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번 강의와 경험에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교수님께도 새삼스럽지만 감사드린다. 이런 기회가 생길 줄 몰랐는데, 수강 후기 에세이 대회를 연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참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종강했음에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교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교수님께 직접 말씀 드리지는 못했지만, 1학년 때부터 항상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함상 감사하다. 물론 처음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수업 방식과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수업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능숙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럴 때는 교수님께 언제든 편히 질문 드리면 된다.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학생을 꺼리는 교수님은 없으시니까. 발표 수업이라는 말에 겁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피드백을 주실 때도 언제나 칭찬부터 시작하시고, 무엇보다 본인의 역량이 향상됨을 느낄 때 정말 뿌듯할 것이다. 이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04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수업 '예술로 읽는 세계사'

2020-1학기 우수상 / 가정교육과 박민이

조기 졸업을 2주가량 앞둔 내게 '신입생을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을 묻는다면 단연코 이봉지 교수님의 '예술로 읽는 세계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전공 교과의 필수, 선택 교과를 제외하면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시간표를 작성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주어진다. 처음 주어지는 이 자유로운 선택들 앞에서 나는 '드디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설레어 첫 수업 전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필코 원하는 강의의 수강 신청에 성공하겠노라 다짐하며 수도 없이 열심히 읽었던 강의 계획표, 그리고 그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강의실에서 만나게 된다니! 교수님은 선생님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교수님은 계획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실까? 대학교 과제는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써야할까? 시험은 논술형이라고 하던데,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까? 첫 수업을 기다리는 나의 머릿속은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로 가득 차올랐다.

드디어 첫 수업을 앞두고 강의실의 문을 열자, 여러 학과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수업에 대한 궁금증과 설렘을 나누며 교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나타나신 교수님께서는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과제 운영 및 평가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첫 수업을 마치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크게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곳이구나!' 첫 수업을 마친 나는 스스로에게 '이곳에서 잘 해보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배워가자'고 거듭 다짐했다. 강의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가슴이 크게 요동치고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다.

학교와 학과생활에 적응을 마친 나는 매학기 새롭게 만나는 교수님들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교류에도 익숙해졌다. 한편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환경 속에서 나도 졸업 기준에 어려움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곤 했다. 그러던 중, 4학년으로 진학한 나는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봉지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꼼꼼한 강의 계획서를 보게 되었다. 먼 옛날 학창시절에는 미술을 좋아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졸업을 앞두고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딸깍' 클릭버튼 하나로 수강신청을 마친 후, 나는 매주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의 산발적인 확산으로 긴 온라인 수업 속에서 매주 교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황량한 사막 속 단비 같은 존재였다. 고전, 인문 그리고 미술의 정수를 배우면서 나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추면서 지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의 확장을 누릴 수 있었다.

'예술로 읽는 세계사'는 서양의 역사와 역사화를 통해 성인들의 발자취를 촘촘히 따라갈 수 있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수업이었다. 또한 서양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그 시대의 배경과 지식을 넘어 역사적 간접 경험을 누리고 반면교사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듣기 전에 ‘역사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읽고 예습을 한 후 수업을 듣도록 조언해주셨다. 책은 18개의 작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날 강의에 맞는 챕터를 읽고 강의를 수강하며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경우에도 오래전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서양사 지식이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강의를 들었다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교수님의 학습방법과 관련된 조언 덕분에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책을 그리듯 저장할 수 있었다. 책은 글 사이사이에 역사화가 등장하고 역사화에 얽힌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나처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해설과 더불어 교수님의 책에 없는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역사화를 보는 눈까지 키워주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대관식에서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역사화에는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번 강의 덕분에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유명한 서양화를 보더라도 그림 안에 왜곡된 역사가 담겨있는지 그림 속 진실을 찾기 보기보다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을 눈으로 지나치듯 보고 왔을 것이다. 그림 속에 담긴 의미를 찾기보다 유명한 그림을 봤다는 겉치레를 중요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 배웠듯이 서양의 역사화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역사들이 녹아있었다. 앞으로 내가 역사화를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찾기 위해 하나의 그림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할 것 같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강의를 듣기 전 그날 강의에 해당하는 챕터를 읽고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들으며 미리 출력해주었던 교수님의 PPT 자료를 보며 교수님께서 설명 중 중요한 내용과 책에서 없던 내용을 정리했다. PPT 자료는 대부분 글보다 역사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역사화에서 중요하게 감상해야 하는 부분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주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 역사화가 그려진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화가가 되어서 후세 사람들이 나의 그림 속에 숨겨진 역사적 의미를 찾기를 바라며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만드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을 듣기 전 예습이 되어있었기에 수업을 듣는 동시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내가 수업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마무리했다. 예를 들어 콜로세움이란 개념을 학습했다면 구글과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검색하고 인지적 개념을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을 더하여 지식구조 속에 내재화하였다.

내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수님께서 수업에 활용하시는 다양한 시각적 자료 덕분에 인지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는 나처럼 세계사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배경지식을 Youtube, 영화, 만화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구축해주신다. 특이했던 점은 게임 예고편 동영상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게임 예고편과 같이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몰입도를 높여주셨다. 일반적으로 교수자들은 게임이라는 소재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지양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봉지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게임 예고편 자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아울러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로 배운 낯선 서양 역사의 내용을 동영상을 보며 흐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한 개의 강의 내에서도 수많은 동영상 편집본이 등장하는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는지 매 강의마다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강의를 듣는 동안 배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LMS 온라인을 통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이었다.

또한 LMS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몰아서 듣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주기적으로 배재콕을 보내어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격려하셨다. 더불어 퀴즈나 시험과 관련하여 교수님의 구체적인 안내는 온라인 수업에서 소통을 하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온라인이었지만 교수님의 수업 과정 내내 지속된 교수님의 관심과 조언은 학습을 증진 지키고자 하는 내면적 욕구를 강화시켜주었다.

이처럼 '예술로 읽는 세계사'는 서양의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역사의 큰 흐름을 그리게 해주는 강의였다.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심각하게 저하되면서부터 미디어에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난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 되도록 인문학과 관련된 수업은 지양했었다. 인문학에 특별히 흥미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인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봉지 교수님의 '예술로 읽는 세계사'는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 입학 이후 들었던 그 어떤 교양과목들과 다르게 배울수록 깊고 넓어지는 지식의 범위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역사적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전 수업 내용과의 계속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주신 덕분인 것 같다. 이 수업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이면서 낯선 영역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준 수업이었다.

또한 서양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관대한 리더십을 보여주던 알렉산드로스의 삶은 현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화들은 속에 승자가 없는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과 인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통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나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의였다.

다만 시험이 변별력을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매 주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은 후, 시험보기 전에도 두 번이나 꼼꼼하게 책과 강의를 정독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의 변별력과 난이도가 높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계기로 매 강의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경청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탐구해보면서 강의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예술로 읽는 세계사'는 배재대학교의 5대 역량 중 첫째, (지성) 서양의 역사를 한눈에 통찰할 수 있는 인문학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이다. 인문학을 기피했던 나에게 학문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식의 장을 형성해 준 강의였다. 둘째, (인성) 역사 속 선인들의 지혜로움을 보며 나의 윤리의식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강의였다. 선인들의 삶의 공통점은 리더가 포용과 평화를 확보되었을 때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인들의 마음가짐을 배워갈 수 있는 강의였다. 셋째, (감성) 서양의 역사화를 감상하며 잊고 지내온 인문학적 감수성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소통) LMS 강의에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선인들과 함께 숨쉬며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이 가능하다. 다섯째, (수행) 동양사에 비해 낯선 서양사 과목을 재미있게 배움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강의이다. 또한 우리학교의 5대 역량 이외에 타인에게 서양의 역사와 나의 전공지식을 융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이 생성되었다. 역사화나 조각들에 등장하는 의상이나 주거형태는 그들이 살아가던 당시의 문

화를 반영하기에 미래의 가정교사를 꿈꾸는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배운 서양화 속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반영하여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사회는 초고령화, 초융합화, 초감성화, 초지능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더 나은 세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교수님의 강의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관점의 변화와 인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치게 된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식과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누가 많이 아는가의 시대에서 수많은 빅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공유될 초연결 미래 사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해야할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인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의 인류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 감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는 인문학적 소양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창조적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인문학의 가치와 철학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인지적 차원 이상의 것으로 미학적, 감정적, 도덕적 계발까지 요구한다고 한다. 미디어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컴퓨터의 사용, 시각적 및 음악적 정보의 해독은 앞으로 더욱더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과 식견만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같은 작품이라도 프레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인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문학과 미학적 감수성 교육을 통해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이해하고 난 이후로, 나는 교수님의 수업에 더 감동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 수업은 서양의 역사 속에 그 시대를 살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작품을 통해 현재의 나의 삶을 고찰하고 배움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강의였다. 수 만 년간 인간이 쌓아온 흙 위의 역사를 만나고 싶거나, 과거의 서양 역사와 현재의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봉지 교수님의 '예술로 읽는 세계사' 과목을 추천한다.

05

내 영어 실력을 심폐 소생시켜 준 “의사” 소통영어

2020-1학기 장려상 / 레저스포츠학과 김소정

“야, 너두 영어 할 수 있어.”

고등학생 때는 이 말을 듣고 영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물론 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할 수만 있었지, ‘잘’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나에게도 조정석 씨의 말이 씨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 바로 박옥희 교수님이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박옥희 교수님의 ‘의사소통영어’ 수업이다. 배재콕으로 전달받은 ‘배재 수업에세이 공모전’ 공지를 확인하자마자 박옥희 교수님이 떠올랐다. 교수님은 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잘못된 독서 습관까지 심폐 소생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과목명이 괜히 ‘의사’소통영어일 리가 없다. 의사소통영어 할 때 의사(意思)가 사실은 내 영어 실력을 고쳐 주는 의사(醫師)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처음부터 이 수업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수업 난이도가 고등학교 수업보다 쉽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했다. 수업이 끝나면 퀴즈 형식의 과제를 풀어야 했다.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며 제출 및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두 번째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말았다. 9점이라니.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봐도 10점 만점에 9점이 맞았다. 퀴즈를 푸는 동안에는 당연히 만점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만점을 받았던 건 전체 퀴즈 중 고작 두 번밖에 되지 않았다. 나의 멘탈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만점을 받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수업이 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 문제 중 기존에 알던 영어 문법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 몇 개가 출제된다. 틀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꼼꼼한 성격이 된 건 물론이고, 퀴즈 형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복습도 할 수 있다. 틀린 답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니, 최소 두 번 복습할 수 있다. 그동안은 영어 공부를 하며 예습을 해도 복습은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수업 후 퀴즈를 푸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퀴즈 형식의 과제뿐만이 아니다. 학교 LMS에 업로드된 수업 영상을 듣는 수업 방식도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깔끔하게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동영상 강의이다 보니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몇 번이고 교수님의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특히나 동영상 음량이 작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영상에서 음량 확인을 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를 잘 활용해 보려 했으나 필기할 내용이 많아 아이패드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다. 필기를 하기 위해 수업 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필기해 놓은 덕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최약체인 내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한 영작도 힘들어했는데 수업을 듣고 영어로 독후감을 쓰더니, 두 번째 영어 독후감으로 Reading Lab 워크북 수상자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영어 독후감을 쓰기 위해 영어로 된 책을 여러 번 정독하면서 독서 습관도 변화하였다. 독서를 할 때 단어나 문장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영어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여러 번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 문맥은 물론, 작가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하기도 수월해졌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음성 녹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영어 발음 연습을 하다 보니 발음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영어 말하기 울렁증이 있는 내가 이를 극복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소통영어 수업을 통해 수상도 하고 과제를 할 때마다 좋은 점수를 받으니 점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수업을 제치고 나의 ‘최애’ 수업은 의사소통영어 수업이 되었고, 좋아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학점도 잘 나왔다.

배재대학교 5대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점도 굉장히 많았다. 가장 먼저 영어 수업이다 보니 지성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통역량의 하위역량인 외국어능력도 강화되었다. 게다가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문화수용능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까지 기르게 되었으니 소통역량의 거의 모든 하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는 당연히 좋은 학점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열정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은 학생 자의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 주시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교수님 덕분에 나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교수님을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따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나의 수업에세이 내용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은 바보야...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다니...” 같은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의사소통영어 수업을 통해 점점 영어 실력이 개선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실패하셨던 일을 교수님께서 가뿐하게 해내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나만의 조정석 씨, 박옥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글 솜씨가 뛰어나지도 않고 처음 에세이를 작성해 보는 것이라 문맥의 흐름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 수업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것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기본적인 영어 문법, 외국 문화, 영작 실력, 영어 발음, 그리고 배재대학교 5대 역량까지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박옥희 교수님의 ‘의사소통영어’를 평가하자면 C급이라고 생각한다. 1 대학교에 1 박옥희 교수님 도입 시(C)급...♡

이상으로 나의 영어 실력을 심폐 소생시켜 준 ‘의사’소통영어 수업에세이를 줄이도록 하겠다. 어차피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면, 박옥희 교수님의 의사소통영어 수업에 적극적인 학습 태도로 임하여 좋은 학점과 상까지 받아 가길 바란다.

06

깊은 생각이 있는 수업

2020-1학기 장려상 / 유아교육과 이혜원

추천하는 좋은 수업의 내용이 도움이 된 점은 **첫째, 배재대 유아교육과의 역사와 허길래 선교사님의 유아교육 사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유치원을 보급, 확대하고 질적 향상에 공헌한 허길래 선교사님이 졸업생들이 지방유치원 교사로 취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다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에 유치원 교사 양성 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초기 유치원을 확대‘보급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유아교육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과 아동중심 사상을 한국 유치원에 소개하여 유아교육의 초점이 아동 중심 사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경험과 생활 중심교육,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으로서 한국의 유아교육이 큰 전환점을 갖게 하였다. 이외에도 허길래 선교사님(하워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였으며 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여 자연 친화를 통한 정서교육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학교인 배재대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전공과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다. “유아교육자의 좋은 점은 영유아 관련 지식 습득,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 영유아에게 받는 긍정적 에너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전문가로서의 삶, 영유아, 가정 나아가 사회 발전 기여하는 직업이다.” 첫 번째의 이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재대 유아교육과의 역사와 허길래 선교사님의 유아교육 사상을 아는 것을 통해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허길래 선교사님의 말씀 그대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셋째, 전공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교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조화로움을 발달을 돕는 활동이다, 주로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발달인 즉 지 정 의의 조화된 발달을 돕는 활동이다,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가 개인이든 공적 기관이든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공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조화된 발달을 도와야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은 직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넷째, 어떤 인재로 키워야 하는지 어떤 교사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창의성, 공감, 능력, 지혜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 교사의 역할은 자율 규제 및 맞춤형, 협력적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 안내자와 멘토, 친구 및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코디네이터, 온라인 지원 및 디지털 도구가 강력한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 교사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고, 학습 전략에 대한 전문가, 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및 심리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을 것, 의사소통

전문가 등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상담자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학생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멋진 유아교육자가 되려면 영유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유연하고 놀이의 즐길 줄 아는 사람, 기다려 주는 사람, 영유아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건강하고 역동적 성격을 갖은 사람, 팀워크를 좋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기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다. 기술적으로 동기 유발 및 환경구성의 능력, 영유아의 발전을 위해 구성,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적으로는 영유아의 발달 및 놀이, 학습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도하는 교사가 되려면 공부를 하여 이론 내용 이해하기, 이론과 실제 연결해 생각하기, 사회의 변화 읽기, 유치원교육과정의 실제 생각해보기,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해하기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사회 교사는 단지 자신의 전공 교과를 넘어 다른 많은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교사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하고 다른 영역과 접목 시킨 수업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잘 알아야지만 그것에 관하여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도록 관심사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특히 꾸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전시회, 체험 등을 먼저 함으로써 이것을 수업으로 진행할 때 조심해야할 부분, 좋은 부분, 흥미 유도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위해 노력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여섯째,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인생에 관한 고민을 하게해주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게 해준다. “사소한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고 비교의식, 사색이 없고 개념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독서하지 않고 계획만 무성하고 실천은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직업과 어떤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했던 안 좋은 사소한 행동부터 적고 고치면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뭐가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책을 읽어서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곱째, 학과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배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유아교육에 힘쓰고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나 보육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놀이 중심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놀이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중요해진 놀이 중심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답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사의 역할은 민감한 관찰자, 유연한 계획자, 협력적 지원자. 실천하는 연구자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관찰하여 놀이를 지속시키고 놀이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한다, 유아의 발달 특성과 수준에 맞게 경험해야 할 내용을 놀이답게 연결되도록 계획해야한다, 유아의 아이디어나 관심을 거리낌 없이 발휘되며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가 확산되는 공간여야하고 교사와 유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간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유아의 일상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교육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활동과 연결 짓기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연구해야한다, 실천적 이론을 구축하고자 고민하는

교사의 태도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놀이와 유아의 발달 특성과 수준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가상으로 ‘아이가 이런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놀이로 풀어낼까? ‘라는 고민과 구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좋은 수업에서 교수님의 좋은 수업 방법은 LMS로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을 올리시면 기간 내에 듣는 형식이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마지막에는 ZOOM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하셨는데 쌍방향으로 소통하여서 좋았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한 것을 댓글을 보내서 여쭤보면 댓글을 보신 교수님이 이에 대답을 해주셨다.

내가 수업에 참여한 노력과 나만의 학습방법은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라는 전공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설명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가치관과 교직관 등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는 영상을 멈추고 그 질문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다시 재생하거나 메모를 하고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바로 고민하였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독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나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계발 책도 3권 읽어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그 방법들을 조금씩 적용시켜나가고 있다. 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루에 30분 정도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알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들도 가졌다. 또한 이 강의를 듣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위에서 설명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전시회를 가서 다양한 그림과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의 삶을 간접으로나마 느끼고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록하였다. 앞으로 몸으로 직접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수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좋은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성찰의 질문 중 “내가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인가?” 에 질문에 올바르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어떤 교육관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명의 아이의 현재 발달 상태와 심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더 나아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앞서 말한 교사가 되려면 우선 전공과목을 집중해서 듣고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중에 아이의 행동과 말 등을 통해 아이의 현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배웠던 유아교육론과 영유아발달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만 생각하였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나의 직업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자나 보육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학교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수업 덕분에 바람직한 교직관과 앞으로 어떤 삶과 마인드로 살아야하는지, 어떤 공부와 성찰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

배재대학교 5대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업 중에 학과 선배님들의 조언들과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직관을 가져야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시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서 어떤 인간상을 가져야하는지 알려주신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한 역량별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인성역량**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

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유치원교사 혹은 어린이집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라며 직업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직업과 어떤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되길 빕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생각과 태도, 행동 특성으로 자신의 내적 동기나 욕구표현을 조절, 제한하여 개인이 사회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아존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사소한 행정적 재정적 일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내가 맡은 학급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선생님이 되시길 빕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베풀고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두 번째로 **감성역량**에서는 “감성적인 사람으로 자연변화는 물론 영유아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 부모와 동료, 나의 가족이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공감을 잘 해주시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시길 빕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감각적 자극을 통한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조절하여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짐으로써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분이 안 좋았다면 왜 안 좋았는지 이유를 찾는 등을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서를 조절하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적으로 수용하여 상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세 번째로 **지성역량**에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료간, 유아와 혹은 부모 등의 인간관계는 물론 교재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등에서 기존의 방법이나 관례를 떠나 재미있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지식 습득과정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통찰하여 새롭고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역량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먼저 인관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왜 이러났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소통역량**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인간은 모든 생물 개체 중 사회적 유대를 잘 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앞서 말한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들을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가족들, 학교나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경험들을 쌓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좋은 쉬운 사람’ 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에게 가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잘 해줄 거야. 언제 물어봐도 기분 좋게 말 해주실 거야!’ 라는 느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다문화를 수용하고, 외국인과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 역량이 교사에게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하는 의사전달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해야하고 다문화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수용하고 함께 지내려면 교사 먼저 다문화에 대한 수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행역량**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을 실현하시면서 여러분의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 교사가 되 시길 빌어요. 여러분 안에 ‘길’ 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과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역량은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역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행 역량을 중요시 여기셨다. 또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보 과부화의 시대에서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한다,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와 놀이를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전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나는 전공의 이해 과목의 이진화 교수님 수업을 추천한다.

07

교육,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2020-1학기 장려상 / 유아교육과 김규빈

‘교육,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교육, 이것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다. 단지 수업에서의 배움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심리 라는 수업을 듣기 전의 나는 전자처럼 교육을 단지 배움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지만 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교사 가치관까지 확고해지는 좋은 영향을 받았던 수업이다.

항상 공부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교육심리를 듣고 단지 이론에서 그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 이상으로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업이 되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 볼 때 전공에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던 교육학을 넓게 알게 되어 전공 공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전에는 이해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이해를 한 다음부터는 다른 이론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배운 이론이 이미 실제 교실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방학 동안 유치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할 때,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말해줄 때 교육심리에서 배운 내용이 적용될 때가 있었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설명할 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니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 나의 성장 측면이다. 이현주 교수님의 수업의 좋은 점은 정말 많지만 그중 한 가지를 고르자면 이론과 그 현상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이야기로 예시를 들어주셨다는 점이다. 덕분에 수업의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단지 교육심리 라는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나의 꿈인 유치원 교사와 더욱 가까워지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더 나아가 단지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할 때까지도 대화 속에서도 교육심리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날 정도로 교육심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수업 방법으로는 교수님께서는 LMS로 강의를 올려주셨으며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중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서 온라인 수업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주셨다. 특히 학생들이 이론만으로 알고 끝낼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의 외에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특히 비긴어게인 영상자료를 활용하시는 열정적인 모습 덕분에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었다. 또 마지막 시간에 핵심어 정리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배운 교육심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배운 내용을 다시 보는 복습시간에서도 교수님만의 긍정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셔서 자칫 배운 내용이라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는 수업시간에 활기를 불어주셔서 공부를 하면 힘이 나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만의 가지고 계신 긍정적 에너지와 교수님의 웃음 덕분에 온라인 강의에서 끝나지 않고 배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이런 점이 교수님만의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핵심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다. 교재와 교수님께서 주신 프린트 외에 지금

까지 배웠던 전공 책과 다른 관련 도서들을 찾아서 추가하고 정리하여 수업에서 강조하셨던 내용을 되짚어 보며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다.

배움이 가득했던 수업 덕분에 방학 동안 유치원에 있으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에서 낯설어 하는 아이에게 전에 비슷한 놀이했던 경험을 다시 떠올려주며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유치원 교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되었다.

교육심리 수업은 배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5대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었는데 첫 번째 행동인성 측면에서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그에 따른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 자유감성이 풍부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따듯한 교사와 세 번째 자립지성으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감소통 측면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배우고 더불어 상담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 번째 도전수행으로는 어려운 일이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5대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시면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강조하시면서 공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교수님의 교육심리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수업이 단지 이론만을 설명하는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의 배움이 교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추천한다. 또한 교수님은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셨다. 특히 교수님 말씀 중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동안 성실하게 지내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부터 시험기간 때 암기할 것도 너무 많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적도 많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교육심리라는 과목은 교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인 만큼 이 수업을 듣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교육의 의미까지 깊이 새기게 되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08

한계와 발전

2020-1학기 장려상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이희준

모든 학문과 학습에는 본질과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분과 역할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1학기 과목 중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과목은 이와 관련이 깊은 '영어학개론' 입니다. 영어학개론은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의 필수 전공과목으로 우리가 흔히 말로 배우는 회화에 가까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이 어떻게 써지고 그 글을 구성하는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등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He may have been given an apple.' 이라는 문장을 단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같은 시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생략된 부분은 없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의 본질과 형성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예컨대, 영어로 글을 쓸 때 암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글을 쓰는 것 보다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떠한 학문의 본질과 형성 원리를 깨닫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한번 내용을 숙지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는 없는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학기 영어학개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쌍방향이 아닌 LMS를 이용한 시청형 강의였기에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질문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나태해질 가능성 역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강의와 수업은 한번 듣는다고 모두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상기시킬 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강의뿐 아니라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던 강의 역시 시간이 될 때 LMS와 코스모스 어플을 활용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학기 시간표에 맞춰 강의를 듣고 주말에 집에서 시간이 남거나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활용하여 복습을 하곤 했습니다. 이는 제 머리 속에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과목의 특성상 비슷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야라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자신에게 조금 더 친숙한 분야를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학개론의 주된 내용은 글과 문장의 구조,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즉, 국어로 생각해본다면 문법 영역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국어 영역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 대입하여 이해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형성원리를 공부하는 와중, 'lengthened' 의 root(뿌리)가 'length' 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어에

서 이와 유사한 어근의 개념을 먼저 학습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의 어근, 즉 뿌리는 ‘행복’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학습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접 배운 내용을 다른 문장과 단어에 직접 적용시켜보았습니다. 듣는 것은 분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나 직접 해보는 것이 완전한 이해를 만들어 줍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학습하며 마라톤을 배운 사람과 매주 직접 마라톤을 뛰어가며 배운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과정은 그 과정 속에서 이론에 없던 자신만의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품사별로 쪼개어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른 문장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해도와 풀이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어떤 품사를 먼저 찾아서 가지치기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며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저만의 학습전략을 세워 학업에 참여하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 수업 방식 역시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번에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가르치는 부분의 순서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기도 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활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교수님의 도움이 된 강의 방식은 예시 활용, 표본 활용, 그리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시 활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강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할 것 같은 부분에 실제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빨간색을 설명하기 위해 사과, 피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단순한 강의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수록 예시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교수님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 개념의 예시를 여러 가지 나열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은 Clipping(자르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Elizabeth가 Eliza, Liz로 바뀌는 것, Alexander가 Alex로 바뀌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예시를 아낌없이 활용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강의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본 활용입니다. 이 역시 단순하고 기초적인 강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정답과도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소리가 나는 원리를 강의할 때, 본인이 직접 발음을 하나하나 읽고 녹음 본을 제시하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처음 겪는 내용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또한, 매주 강의의 앞부분에 각종 표본들을 활용해 이전 이야기를 반복시켜 우리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저 역시 실제 발음 자료를 자주 확인하고 수업의 앞부분을 통해 복습함으로써 더 나은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관심입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전공 교수님이라도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듣기는 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과 전화 상담을 가지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화 상담을 통해 발음을 테스트 받고,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받고, 그 밖에도 고민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훌륭한 강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학개론 강의를 수강한 후 저는 제 스스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자신만의 방법과 길을 개척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끈기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물론 학습 환경, 강의의 질 모두 중요한 부분이지만, 끈기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포기는 실패와 다르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강의 내용과 어려운 강의 환경이었지만 저는 저만의 학습방법을 통해 끝까지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 시험 문제를 풀이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했던 때와는 기분이 다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저의 남은 학업과 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교육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저에게 이번 강의는 교육자란 단순히 남들보다 뛰어나고 독창적인 것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조금 더 눈에 띄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높게 자랄 수 없고, 뿌리가 강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보다 높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는 배재대학교의 5대 핵심역량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지성역량 그리고 수행역량과 이번 강의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성역량이란 지식 습득과정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고, 통찰하여 새롭고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 내용을 비슷한 분야의 내용과 비교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학습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어학개론 강의는 학생들이 지성역량을 강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행역량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하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평소와는 다른 학업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잘 파악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했던 이번 학기를 통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 저의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짜며 스스로 공부 시간을 정해볼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학기에 영어학개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끈기와 문제 풀이보다는 원리와 본질에 집중하는 눈을 배웠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상황과 과목의 난이도 덕분에 다가오는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끈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 상황이 오면 쉽게 무너져버린다면 이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역시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09

WHO AM I? JUST ME: 진정한 나와의 만남

2020-1학기 장려상 / 유아교육과 차현주

<알을 깨다-시작>

21세기 기계를 사용하게 된 이래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을 여기게 된 현대인들은 인생을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떠 전투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을 붙잡는 행위를 '휴식'이라 여기며 시간을 보내다 다시 침대에서 눈을 감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기에 그날 겪었던 좋은 일이나 슬픈 일에 충분히 기뻐하거나 슬퍼할 여유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계에 묻혀 기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 중 하나였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는 어느새 경쟁에 걸맞게 교육 관련 설명문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제출하는 대학생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힘든 하루를 그저 맥주 한 캔 들고 친구에게 푸념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는 현대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라 불리는 족쇄에 걸려 있는 상태로 괜찮은 척 현실에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우연히 과거의 문을 열기라도 하면 아픔에 몰려와 외면하게 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2학년 2학기에 '심화 글쓰기' 영역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영조 교수님의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과목 정보]

교과목 정보

과목구분	일반과목				
교과목 개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인간', '경쟁적 개인'의 삶을 강요당하며,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나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본 강좌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짧은 과정이다. 그 과정에 글쓰기와 토론이 함께 있다.				
필수역량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40	32	4	16	8
학과역량					
교과목 학습목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능동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할 수 있다.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 생각해 보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실기	현장학습	발표	세미나	온라인	기타1	기타2	기타2	합계(%)
20	30	30	0	20	0	0	0	0	0	100

수업매체

수업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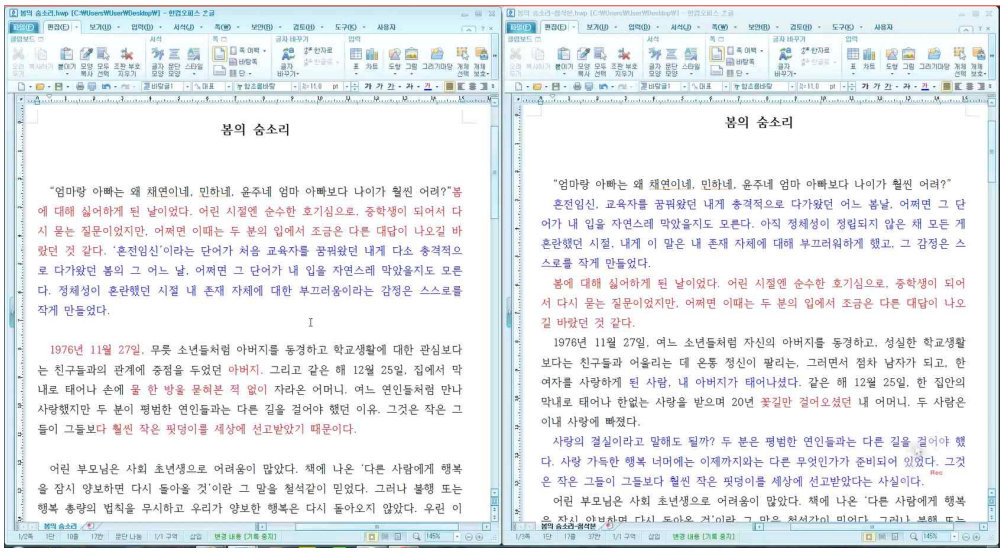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토론	기타	합계(%)
0	40	15	40	0	5	100

이 수업의 교과목 정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누구나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 강의를 끝마칠 때까지 가장 큰 목표이자 과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남과 비교하며 타인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이 수업을 듣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진정으로 자기성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이론적 과목보다 토론과 발표 활동, 과제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이 강의는 본인이 수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발표하고 토론하며 운영하는 수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글과 관련된 큰 가이드라인만 주셨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LMS 시스템에 올리고, 서로 평가를 해주는 형태로 수업을 꾸려 나갔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학습 방식 덕분에 온라인 수업임에도 생동감 있는 수업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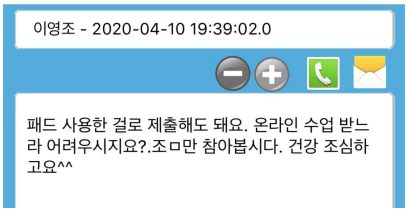
이영조 교수님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교수님입니다. 여러 학생들 중에는 교수님의 역할을 그저 ‘정보전달자’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한계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바쁘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수님과 유대관계를 쌓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조 교수님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딛고 제출한 과제에 대해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공개적으로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쓴 에세이에 대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며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처럼 수업 후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없었던 불편한 상황에서도 배재콕 쪽지로 질문을 드리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역할 덕분에 학생들도 더욱 용기를 얻고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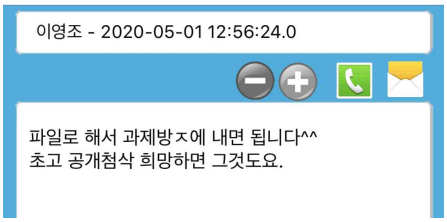
[강의 내에서 공개첨삭을 해주시는 부분] 왼쪽 나의 글, 오른쪽 교수님의 첨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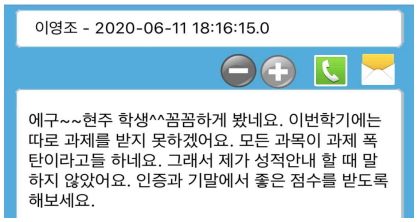


[교수님의 댓글 피드백]

[배재콕 질문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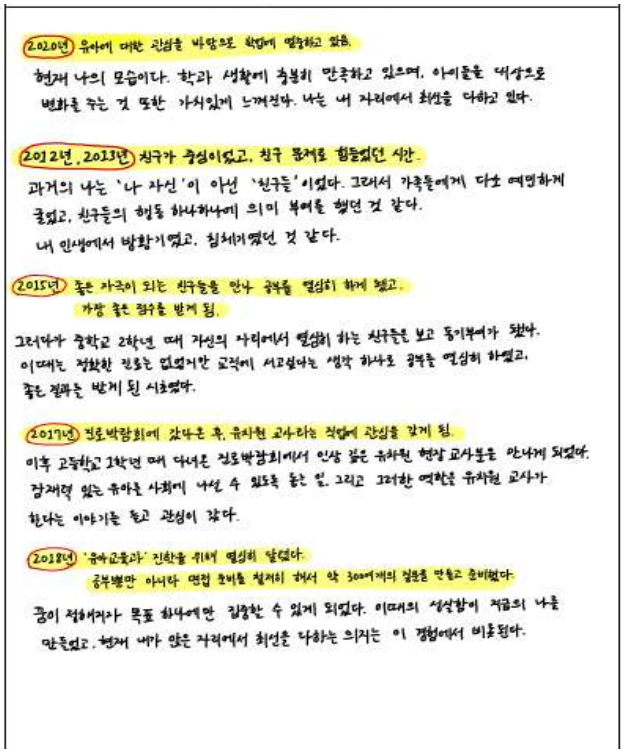


<나를 마주하다-강의>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이것으로 감정을 분출하게 되면 심리적 짐을 덜게 된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성찰적 글쓰기의 효과입니다. 글쓰기 강의이다 보니, 글을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조 교수님께서는 늘 강의 시작 전에 글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았던 내면의 자아와 마주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글 한 편을 갑자기 내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글을 쓰기 전, 교수님께서 만드신 학습지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였고, 이후 내용을 엮어서 글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단계적으로 나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은 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트라우마를 마주할 수 있었고, 직접 마주하니 물리칠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학습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개요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글을 쓰며 통찰의 범위를 계속 넓혀나갔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어둠이 언급되어 새로운 미래에 대해 설계해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학습지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해본 모습]


2020년 유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음.

현재 나의 모습이다. 학과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변화를 주는 것 또한 가치있게 느껴진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 2013년 친구가 중심이었고, 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

과거의 나는 '나 자신'이 아닌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소 예민하게 굴었고, 친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방황기였고, 침체기였던 것 같다.

2015년 좋은 자극이 되는 친구들을 만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됨.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고 동기부여가 됐다. 이때는 정확한 진로는 없었지만 교직에 서고싶다는 생각 하나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시초였다.

2017년 진로박람회에 갔다온 후,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됨.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녀온 진로박람회에서 인상 깊은 유치원 현장 교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잠재력 있는 유아를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유치원 교사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갔다.

2018년 '유아교육과'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렸다.

공부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약 300여개의 질문을 만들고 준비했다.

꿈이 점점커져가 목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의 성실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 내가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지는 이 경험에서 비롯됨.

앞서 언급했듯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쓴 초고 에세이를 첨삭해 주는 내용을 온라인 강의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첨삭한다는 것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교수님의 응원과 격려를 듣고 싶어서 초고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민낯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인지하고 첨삭하는 내내 학생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첨삭을 듣고 난 이후에는 민망함보다는 과거를 딛고 일어설 용기가 솟았습니다. 피드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교내 대회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색하다고 말씀해 주신 문장 표현들, 그리고 대체 가능한 다른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가며 고민하였고, 점점 글의 틀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이후 교내 주시경 교양 대학 에세이 대회에 참가한 결과,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란 그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사를 꿈꾸는 저 또한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교내 에세이대회 수상]

<2020-1학기 제8회 주시경대학생 에세이대회 수상자 명단>

순번	시상 내역	학과	학번	학년	이름
1	최우수상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208***0	1	김*영
2	우수상	전자공학과	169***9	3	김*한
3		건축학과	186***4	3	김*희
4		가정교육과	171***9	4	서*경
5		유아교육과	191***5	2	차*주
6		심리상담학과	170***0	4	박*윤

이 수업은 학생이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얻어 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수업의 주체자로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느새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발표'와 '토론'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쓴 에세이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과제였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을 평가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신 이영조 교수님은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Who AM I? JUST Me.-현재>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 언젠가 아주 먼 미래의, 조금은 초라할지도 모를 제 모습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직위도, 사회적 관계도 아무것도 없는 제 모습에 설명하는 것이 망설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를 듣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진정한 제 모습에 대해 1학기 내내 생각해보았습니다. 미래의 '나'도 결국 '나 자체'입니다. 사회적 직위, 관계를 규정하는 호칭 등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은 결국 밖에서 내게 부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변하는 것들이므로 진짜 내가 아닌 '임시의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한 동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저는 과거 때문에 고통 받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워할 것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하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은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삶을 성찰하고, 또 글을 쓰며 제 과거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진정한 청년 아펜젤러 교육자가 될 것입니다.

10

나의 첫 대학 수업 <TESOL 개론>

2020-1학기 장려상 /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김채린

대학교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어 처음에는 좀 낯설었다. 난생처음 TESOL이라는 낯선 과목에 관해서 공부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떨렸다. 그리고 <TESOL 개론>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실지 궁금했다.

강의를 담당하신 조영우 교수님은 항상 개념을 꼼꼼히 설명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매번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셔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전문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수업을 하셨다. 강의를 듣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영어의 역사에 대해 배웠다. 영어는 게르만어와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언어이다. 그리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이다. 이때 다수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영어를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영어 교육이 필요해졌다. 이와 함께 TESOL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어의 문법이 아닌 역사를 배운 것은 처음이었는데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내가 정말로 대학생이 되어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배우는 내용이랑 확실히 깊이가 다르다고 느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TESOL이란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의 약자로 영어 외의 모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TESOL 과에서는 영어 교육 방식과 영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교수님께서는 전공 지식 이외의 인생 조언도 해주시곤 하셨는데 그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일학년 때는 선후배 간 예의를 잘 지키고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께 실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교 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릴 때 학과 사무실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연락을 드릴 수 있었다. 교수님이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나쁘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감동적이었고 교수님의 기대에 기꺼이 부응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뒤돌아보니 이런 작은 조언의 말씀이 내가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강의를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성찰일지는 자신이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경험이나 배경지식과 외부자료를 통합하여 개인적인 결론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대한 분량의 강의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매주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강의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되었고 점차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실천 과제를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자기 주도적

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TESOL의 다양한 핵심원리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분야의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 여러 주제의 수업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영어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었다. 영어에 관한 역사 수업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상복 작가의 '배려'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활동도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교수님이 왜 이런 과제를 내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나도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학년 수업이라서 고학년 수업과 달리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수업내용이 대부분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영어 실력도 함께 향상되었다.

매주 월요일에 40분가량 되는 교수님의 TESOL 개론 강의가 두 개씩 LMS에 올라왔는데 나는 이 수업을 먼저 듣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들으려고 다른 강의를 먼저 들었다. 다른 수업을 다 들으면 조영우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른 강의도 더욱 열심히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강의를 듣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처음에 수업을 한 번 들으면서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더욱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말씀을 모두 받아 적고 이를 핵심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여 시청했다. 이후에는 요약한 글을 참고하고 외부자료를 찾아서 성찰일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여 4학년 선배님의 첨삭을 받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를 제출하였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강의가 길어서 집중하기 힘들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라고 하시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셨다. 교수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더불어 시간 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게임중독 등 조심해야 할 생활습관에 대한 말씀도 기억에 남는다. 자칫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교수님의 진심어린 마음이 느껴져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우리 학교의 5대 핵심역량인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역량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먼저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의 말씀들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나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무엇보다도 인성 역량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수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자주 공감해주고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통해 감성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강의를 듣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나만의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지성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교수님에게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수업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통 역량이 많이 길러진 것 같다. 또한 매주 성찰일지 작성을 위해 스스로 강의를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행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다른 강의도 훌륭하지만, 이 강의가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 준 강의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나의 후배가 될 학생들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나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자랑스러운 배재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조영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한 TESOL·비즈니스과에 오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도 잊지 않고 싶다. 다음 학기에 듣게 될 조영우 교수님의 전공 수업인 '글로벌영어비즈니스개론'이 벌써 기대가 된다.

11

새로운 교육, 변화하는 사회, 소통하는 사람들

2020-1학기 장려상 / 피아노과 신소정

2020년 1학기 교직부 구혜정 교수님의 <교육사회> 강의는 교사를 꿈꾸는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는 점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강의가 되었다. <교육사회>는 1차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을 배우게 된다. 후에, 2차적으로 앞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삼아 교육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논점을 생각해내도록 하였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인 만큼 LMS 동영상강의로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불편한 마음들은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일방향인 영상강의로 학습을 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께서 자주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드백과 질문거리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올려주셨다. 어쩌면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배려심 덕분에 강의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내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데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교수자의 자세와 상황에 대응하는 평가방법과 과제내용 때문이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조별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나는 이 조별과제가 나의 역량 향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교수님께서 각 조에게 강의에서 배웠던 큰 주제를 주시고 조별로 큰 주제 안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골라 그에 대한 설명과 이슈, 앞으로 생각해보아야할 논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바탕자료인 PPT를 만들고 PPT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표자의 목소리를 녹음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로웠다. 또한,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조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따라서 내가 속해있는 조는 조원들끼리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합의하여 합의한 시간에 맞춰 짧은 시간 안에 과제 과정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나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조별과제는 대학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 5대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지식, 수행, 감성 그리고 인성까지 모든 역량이 요구되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 혼자서가 아닌 각자 살아오고 배워왔던 환경과 과정이 다른 학생들끼리 힘을 합쳐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한다. 이전에는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큰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조별회의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조별회의를 했을 때에는 한명이 집중이 흐트러지면 회의의 주제나 방향이 잡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결정하기에 쉽지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니 서로 시간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수정하며 고쳐 의견과 답변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원들 간에 감정 상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발견할 수 있던 과제였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과제 면에서도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강의였지만, 두 번째로 강의내

용 면에서도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 강의였다. 사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공부는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내용을 지식과 함께 섞어 전달하는 강의가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듣다보니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도 교육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신선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는 교과서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는데 사실 배우지 않은 또는 배우지 못한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며 학교 안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교육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선한 교육과정의 형태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선생님의 의도하지 않은 언행이나 태도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는 항상 언행이나 태도에 신경을 써야하고 인식하고 있어야함을 알려주는 시각도 알려주었으며 '탈교육화'라는 단어도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한 파트였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할수록 교육의 형식적인 틀로 학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의견 주장을 할 때에도 틀이 생겨버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 지금 정보화 세대처럼 1초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와 넘쳐나는 정보들을 파악하고 사회의 흐름에 맞게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과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끝없이 변해왔고 변해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단시간에 고난도의 발달기술을 개발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무선이어폰과 같은 여러 전자기기를 수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이러한 세대와 사회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영상을 가장 첫 시간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여주셨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오로지 교육은 왜 제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였다. 그로 인해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교육에 대한 편견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버리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심화 이론을 제외하고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양과목으로 넣어도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기술되어있는 내용이나 평가방법, 강의내용을 형식적으로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보다 강의와 관련한 영상을 감상하면서 보다 더 쉽고 임팩트 있게 학생에게 어떠한 강의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첫 주에 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평가방법마저 상황을 고려한 방법과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시험을 보는 주에 대전에 급격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수님께서는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파악을 하고서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진행하신다고 공지를 하셨다. 하지만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보는 것은 장점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자 모두 난처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하겠다는 교수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시험불안이 더욱 커졌었다. 그러나 시험 당일 문제를 공개하셨고 나는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는 변별력을 고려한 난이도 상승과 자신의 생각까지 써야하는 논술형 문제였다. 나는 평소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포함해 답안을 작성했고 그에 따른 좋은 성과도 이루어냈다.

나는 이 <교육사회> 강의가 우리 학교의 5대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에 모두 적합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인성, 감성, 지성, 수행 그리고 소통 중 마지막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핵심역량진단을 했을 때, 소통 역량이 다른 역량들에 비해 핵심역량 지수가 낮은 편이었는데, <교육사회>를 수강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하고 깨달았다. 교수님은 종강하기 전,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하셔서 Webex라는 실

시간 쌍방향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을 해보았다. 처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시는 교수님도, 학생들도 떨렸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니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하는 것도 오랜만이라 정말 반갑기도 했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기에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다. 서로간 소통은 강의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 호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는 나에게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교육에서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가 교수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강의였다. 강의 끝에 나는 후에 구혜정 교수님과 같은 소통을 잘하는 교수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도 되었다.

12

내 시야를 넓혀주고 양분이 되어준 수업

2020-1학기 장려상 / 가정교육과 임윤희

제가 추천하려는 수업은 우리 학과의 전공 선택이지만 전공 기본이수 교과목인 ‘주거 원리’ 수업이다. 기본이수 교과목이기 때문에 신청했고, 1학년 때는 접하지 못했던 교수님이라 약간의 걱정을 담고 신청했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 시작이 일주일씩 미뤄지다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했을 때 OT 수업인 첫 영상을 보고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가볍게 수업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과목명이 주거 원리인 만큼 집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주거의 개념, 욕구와 가치부터 시작해 주거를 선택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가족의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주거가 어떻게 다른지, 주거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어떤 것이 발전하거나 생겨나는지를 배우고, 이를 좀 더 심화해서 현재 주택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내에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주거에 미치는 실내 환경이 무엇이 있는지를 배웠다. 이를 토대로 배운 내용을 학생들 개개인에 대입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기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리포트 작성과 한 영상 당 나가는 진도가 많다 보니 수업 내용을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등의 과제를 내주셨고, 중간고사는 미래의 한 시기를 정해주시고 그때 나의 주거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주택 평면도를 그려 업로드 하는 대체 과제를 내주셨다.

이 수업에서는 첫 영상부터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다른 수업보다 더 애착이 가는 수업이다. 따라서 본인은 차질 없이 잘 따라가기 위해 기간에 맞춰 해당 주차에 올라온 영상을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전공이기에 영상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었고, 한 번의 영상에서 나가는 진도가 많았다. 한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촉박한 과제가 아니라면 주차를 밀리지 않아야 진도도 잘 따라갈 수 있고, 하고 싶은·부담이 되지 않는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차를 밀리지 않으려 신경 썼다. 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과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어서 해당 주차에 맞는 과제가 확실히 제출이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마인드 맵 과제의 경우 영상을 보며 그때그때 멈추며 기록을 해 성실히 꽉꽉 채워 제출했고, 자신의 생각이나 미래를 예측해 리포트로 제출하는 것은 과제 내주신 그날부터 틈틈이 채워 넣어 수정을 거친 뒤 제출했다.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 여쭤보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연락해 풀어나가기도 했다.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이 채플과 인성 리더십을 포함해 8과목을 들었는데 그중 주거 원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주거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집이 대전이기에 자취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주거와 관련된 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기껏 해봐야 전·월세라는 형태와 각각의 금액의 선, 아파트·빌라 정도의 주거 형태, 대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집구할 때 확인할 것 등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보편적으로 우선시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집을 구할 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구나, 어떤 경로든 내가 살 집을 생각하는 데는 결정하고 알아볼 것들이 정말 많구나, 앞으로 독립하게 되면 원룸 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가정을 갖게 된다면 주거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하게 될 범위가 더 크게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지금껏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주거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첫 번째 추천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다. 교육과의 특성상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실습이든 졸업 후 교사로 진출하든 수업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거 원리 수업을 맡으신 변현진 교수님께서는 현직 교사(중학교)이시기 때문에 현재 교육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나 교육 커리큘럼 등을 잘 알고 계시고,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본인만의 꿀팁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 교수님은 이번 한 학기 수업을 통해 본인이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수업 방식을 소개해 주셨다. 우리가 주거 원리라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교수님 본인이 접했던 상황들을 예시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현재 쓰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퀴즈를 낸다거나 또는 최근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흥미 있을 만한 활동에 대한 예시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수업 중간 중간 들어주시는 예시나 상황들 덕분에 수업 내용이 더 쉽게 느껴졌고, 현재 내 실생활에도 접목이 되는 부분인 만큼 나에 대입해 생각해보기도 했으며 내가 만약 수업을 진행하면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세 번째 이유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반발로 온라인 실시간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일관성 있게 온라인 녹화 본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원래 강의실에서 마주 보고 소통하며 진행하던 수업이라 교수님도 학생들도 온라인 진행에 적응해야 하고,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감당할 만큼 온라인 녹화본이 좋았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영상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셨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시 역시 충분했으며 교재를 구매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피피티 화면에 필요한 부분을 띄워주시기도 했다. 또한 수업을 듣고 질문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배재콕이나 LMS의 쪽지, 온라인 수업 후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고, 교수님도 적당한 텀으로 답장을 해주시는 등의 경로가 있어 소통에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 오히려 온라인 녹화본 덕분에 개개인에 맞는 시간 배분을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있어서 장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은 부담이 될 정도로 과제가 많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전선 과목의 경우 교재 한 권 분량의 과제를 내주셨고, 다른 수업들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부담이 큰 과제들이 많았다. 과제만으로도 벅찼던 한 학기인데 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면 더욱더 부담이었던 한 학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온라인 녹화 본이었기에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 먼저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 수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학교의 5대 핵심 역량은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인데 그중 ‘주거 원리’ 수업은 모두 다 해당된다. 채움 시스템의 역량진단에 소개되어 있는 역량의 정의와 함께 보려고 한다.

인성역량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생각과 태도, 행동 특성으로 자신의 내적 동기나 욕구 표현을 조절, 제한하여 개인이 사회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주거에는 개인의 욕구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내가 조금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나 혼자가 아닌 가족구성원과 살아가려면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 합의하에 중요도를 매겨 그중 더 중요한 것들을 주거를 선택하는 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주거 원리 수업에서는 이러한 주거를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두는 순위들을 알아보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순위들을 매겨보는 활동을 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위 역량인 자아존중과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등까지 고취시킬 수 있었다.

감성 역량은 사람의 감각적 자극을 통한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조절하여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이다. 주거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각자 어느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느 부분에 덜 민감한지를 인식하고 본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확인했다. 또한 외딴섬에 집짓고 나 홀로 지낼 수는 없고,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해나가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동네에 적응하고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어떤 발전이 가능한가를 염두에 두며 주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공감하며 수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상호 신뢰를 갖고 같은 동네의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성 역량은 지식 습득 과정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통찰하여 새롭고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주거라는 분야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칠 일에 대한 부분이므로 잘 새겨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

소통 역량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다문화를 수용하고, 외국인과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수님이나 같이 수강하는 친구와 수업의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풀어나가며 소통을 했고, 수업 내용 중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통가옥들을 비교해보며 서로의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수행 역량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인은 이 수업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수행해나가면서 수업 외의 정보를 검색하고 영상을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기존의 강의실 수업은 전임교수님 수업이었고, 학교에 근무 중이신 겸임 교수님 한 분 역시 주입식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현직 교사분의 실용적인 방법들도 다양하게 배우고, 1학년 때는 접하지 않은 ‘주거’라는 파트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추천한다.

13

점에서부터 그림까지

2020-1학기 장려상 / 의류패션학과 김세이

나의 3학년 1학기 수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염을 예방하고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몇 가지 과목 중 패션CAD 또한 LMS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사실 나는 패션CAD 강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패션 마케팅, 디자인에 필수요소인 도식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패션CAD를 다룰 줄 알아야 했는데 독학으로 배우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패션CAD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 때마침 학교에서 열리는 CAD 수업을 신청하려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패션CAD는 다른 분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3학년 때 열리는 이 강의를 손꼽아 기다렸다.

패션CAD는 주로 일러스트를 통해 도식화를 그린다. 수업 2주차부터 일러스트를 이용했다. 초반엔 툴로 점, 선을 연습했다. 쉬워 보이지만 손에 익지 않으면 버벅거리기 일쑤인 직선과 곡선 그리기는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야 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 하루 동안 진행되는 진도가 꽤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집중도를 높이고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핸드폰으로는 강의를 틀어놓고 노트북으로는 강의 내용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았다. 교수님께서는 일러스트를 처음 다루는 학생들을 위해 천천히, 꼼꼼히 알려주셨다.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안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처음엔 생소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그럴 때마다 돌려서 다시 볼 수 있어서 편했다. 나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번이나 돌려본 수업이 있을 정도로 유용했던 수업 방식이었다.

수업 초반에,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단축키를 배웠다. 우리가 수업에 쓴 일러스트는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어서 이 단축키를 외우면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부분 적용되어 활용 적이었다. 단축키 중 컨트롤+Z는 뒤로 가기인데 도식화를 그리다 보면 작은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썼던 것 같다.

패션CAD 수업에서는 매주 과제가 있었다. 그 과제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 작업 물들이었다. LMS를 통해 과제를 제출하였고 교수님은 댓글 란에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코멘트 해주셨다. 나는 과제를 하던 중 창작 원피스에 지퍼를 짧게 달아 굴곡이 있는 인체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인체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수정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이 부분을 다른 학생들도 많이 실수했는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수업 마지막 강의에서 많이 하는 실수를 총정리 하여 보여주셔서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실수했던 부분은 잊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비대면 강의였던 패션CAD는 시험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중간고사 시점에 집단 감염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으셨고 학생들의 우려로 중간고사는 LMS로 치렀다. 먼저 시험 날 수업 시작 시각인 오후 1시에 과제 제출 창이 열렸고 교수님이 작성하신 PPT에 시험 문제가 들어있었다. 제시된 아이콘으로 패턴을 만들어 도식화 안에 적용해 제출하는 것이었다. 제한 시간까지 만들어야 했고, 그 시간 후로는 제출할 수 없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으로서 대면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지 않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의에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

에 주차마다 성실히 수업을 들었다면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수님께선 제한 시간 안에 모든 학생이 제출했다고 하셨다. 그만큼 LMS를 통한 비대면 시험 절차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기말고사는 지금껏 했던 과제와 창작 디자인+창작 패턴 3착장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였다. 과제 중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피드백 받은 후 바로 수정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었고 창작물은 수업 중반부터 천천히 준비했다. 보통 일러스트로 도식화를 그리는 건 인체를 이해하고 도식화의 특성인 평면감을 익히기만 하면 실제 옷을 보고 따라 그리거나 혹은 창작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강의 초반에는 그려진 도식화를 아래에 깔고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서툴렀다. 내가 자주 접했던 패션 일러스트와는 달리 평면적으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네킹 바디를 계속 보면서 의상 길이의 감을 잡고 펼쳐진 옷을 상상하다 보니 초반과 비교했을 때보다 실력이 늘었다. 덕분에 강의에서 배우지 않았던 '프릴' 그리기를 상상해서 독학하여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평소에 좋아하던 한복을 디자인했고 소재를 묘사한 패턴, 플라워 패턴을 창작했다. 한복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서양복과는 조금 다른 형태여서 관련 서적을 보며 도식화를 그렸다. 전혀 몰랐던 이론들을 이번 기회로 혼자 공부해보면서 한복에 대한 지식이 쌓일 수 있었다.

LMS로는 학생이 사진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일러스트를 작동하며 어려웠던 점은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화면을 캡처해 메일로 교수님께 여쭤보았다. 메일을 보낸 후 배재콕을 통해 교수님께 알렸고, 교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메일을 보셨다. 패턴 질문에 대해 해결책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그 해결책을 참고하여 어려웠던 니트 패턴 만들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작할 수 있었다.

수업 후반부에는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포토샵을 통한 패턴 만들기를 배웠다. 급하게 일러스트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패턴을 만들어야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포토샵으로는 패턴을 입체적으로 사진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다. 도식화 이외에 2D패션캐드와 연동하여 쓸 수 있는 클로3D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방학 때 이루어지는 이 클로3D 특강을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만약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기회였겠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신청할 수 있었다.

도식화는 작업지시서에 가장 필요한 준비물인데, 과제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며 컬러 칩을 뽑는 방법, 일러스트에서 png로 내보내 작업지시서에 넣는 방법 등 간단하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팁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패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수업의 도움이 컸다. 만약 패션CAD를 할 줄 몰랐다면 큰 난항을 거쳤을 것이다.

이 수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역량은 지성역량과 수행역량이다. 수업 내용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직접 찾아서 추진하기 이전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롭게 분석해야만 이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고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손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며 패션CAD의 연장선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14

스페인어를 향한 첫걸음

2020-1학기 장려상 /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김주영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를 공부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겨 선택했지만 기대되는 마음과 동시에 낯설고 어려울 것 같았기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 트랙 결정에 대해 불안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왕무 교수님의 초급스페인어강독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저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왕무 교수님의 강의의 우수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왕무 교수님의 수업은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언어의 기본인 읽는 방법, 스페인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와 동사활용변화를 시작으로 중요한 문법의 원리, 핵심 포인트를 포함한 예문 및 단어가 짜임새 있게 정리된 교재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접하는 언어이기에 공부할 때 힘들 것 같았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보다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유왕무 교수님께서는 LMS에서 녹화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교수님의 수업에 크게 감탄하였고, 정말 최고의 수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설명하실 때 말의 속도가 적절했고,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꿀같은 목소리입니다. 마치 asmr같은...)를 소유하고 계셔서 집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투나 목소리에 민감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특이하거나, 말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리거나 빠르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했으나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의 목소리가 정말 좋고, 말의 속도가 너무 적절해서 기분 좋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필기를 해주셨고, 필기의 양이 적절하였습니다. 칠판에 쓰는 것이 아닌 컴퓨터로 글씨를 쓰시는 것이기에 힘드셨겠지만 최대한 가독성이 좋은 글씨를 쓰셔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대면강의가 아니어서 수업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씨를 못 알아보면 학생의 입장에선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항상 일관되게 정확한 필기를 하셨습니다. 셋째, LMS에 강의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저는 강의 업로드 란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그냥 떡하니 올라와있으면 왠지 모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뭔가 1시간동안 셔틀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 강의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분량의 강의가 5~6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씩 들으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고, 가볍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나뉘어져 있는 경계가 간결하여 밥을 먹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강의의 진행이 명료했습니다.

넷째, 교수님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유왕무 교수님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발음, 문법, 작문, 단어, 계산, 숫자 모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문법 원리나 법칙 같은 경우는 따로 표를 그려주시며 정리해주십니다. 이렇게 교재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셔서 짜임새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교수님의 배려와 격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대학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스페인어는 생소할 수밖에 없고, 처음 접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수업의 시작이나 끝에 덕담을 해주시며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런 행동이 사소하거나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이제 첫 걸음마를 걷는 아기라고 생각하시고 글자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르쳐주십니다. 한번 가르쳤으면 끝이 아니라 같은 문법규칙이나 중요한 단어 등이 예문에서 몇 번을 나오더라도 다시 설명하심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내십니다. 실제로 유왕무 교수님의 이런 수업방식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실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이고,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참여에 나태해질 위험이 있었기에 이를 최대한 경계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강의가 업로드 된 날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선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중 하나인 수행역량의 실천과 향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게으름이란 약점이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과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에서 언급한 수강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 달성을 향해 도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철저한 복습과 소리 내어 읽고 또 읽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스페인어는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이기에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문법규칙 파악, 작문, 해석, 틀린 것 고치기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수는 역시 복습입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수업이 끝나고 휴식을 취한 후 최대한 당일 날 배운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하려다보면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 가볍게 무엇을 배웠나 되돌아보며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소리 내 읽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스페인어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계속해서 읽으니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지는 변화를 하였습니다. 만약 전공으로 선택한 언어와 친해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학기 내내 힘들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음법은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니 잘 숙지하신 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스페인어 실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후에는 외국인과도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으로 훌륭한 소통역량을 갖출 수 있겠지요.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필기 역시 좋은 학습방법이 됩니다. 교수님은 중요한 내용을 적절한 양으로 필기해주십니다. 일단 교수님의 필기내용을 모두 교재에 적고, 본인이 공부할 때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재에 수록된 예문이나 연습문제에 수업에서 필기한 부분이 나오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적어줍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기억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공부할 때에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 머릿속에 저장하듯이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본 결과 시험을 볼 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단 전체적인 부분을 봄으로써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방식으로 표를 그리던 그림을 그리던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가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인 지성역량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다 보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유왕무 교수님의 스페인어강독 강의는 정말 훌륭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스페인어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학생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15

궁금하고, 기대되는 영유아발달수업

2020-1학기 장려상 / 유아교육과 김운정

영유아발달은 유아교육과의 1학년 전공수업으로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담당교수님은 백경순 교수님으로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밝은 에너지가 동영상 강의만으로도 느껴지는 분이다. 영유아발달 강의는 LMS를 통해 피피티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수님은 수업 때 교재의 내용을 요약한 피피티를 보여주시는데 한 눈에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핵심단어나 내용에 대한 강조의 표시가 없는 교재에 비해 교수님의 피피티에서는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다르게 해 글자를 강조하여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이 없을 만큼 교수님만의 언어로 쉽게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영유아발달은 내가 들었던 수업 중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교재에 나오지 않는 참고자료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수업이었다.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배재유치원 아이들의 작품이나 영화관 놀이, 역사 관련 활동 등 다양한 활동내용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셔서 유치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 하는지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또 개념에 대한 유아들의 행동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주 보여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다.

영유아발달 수업의 과제는 영아에 대해 배울 때 내주셨는데 EBS 아기 성장보고서 시리즈 영상을 보고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파일에 빈칸을 채워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파일에는 영상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이 적혀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보면서 빈칸을 채웠다. 아기 성장 보고서 영상에는 바빈스키 반사나 베이비 사인과 같이 생소한 개념들도 많이 담겨있어서 한번 보면 모든 내용이 기억에 남을 만큼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과제물 때문에 그냥 흘러가듯 볼 수 있는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면서 빈칸을 채우다보니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영유아발달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특징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기 성장보고서를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른 생생함이 느껴져 좋았다.

백경순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수업 외에도 「알사탕」,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같은 동화책을 읽어주셨다. 특정한 알사탕을 먹으면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신비한 내용이나, 강을 따라가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내용의 동화책을 보면서 동화책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교훈을 얻게 해주는 등 여러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만에 동화책을 보다보니 어렸을 때 동화책을 자주 읽었던 것이 생각났고 다시 동화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동화책을 읽어보았다. 성인이 되어 읽어본 동화책은 굳이 교육적 효과를 찾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다. 동화책은 성인이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들이 많고, 개성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아 재밌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들은 아직 세상에 비해 작은 존재라 그런지 성인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에도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가령 어두운 방이라거나. 전자레인지라던가. 또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휴대폰 게임 등 자극적인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주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동화책들을 많이 읽어주고 싶다.

영유아발달 수업의 공부는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공부를 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했다. 개념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는 사회탐구 분야의 특징이 영유아발달 과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예습은 자주 하진 못했지만 수업을 듣고 복습은 꼭 하려고 노력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피피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피피티를 기반으로 노트정리를 했다. 그리고 피피티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피피티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갈 때가 있기 때문에 전공 교재를 읽고 참고하면서 내용이 완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노트에 설명을 보충해 적었다. 노트필기에는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과 내가 중요하다 느끼는 부분을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번 읽어보았다.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 착각할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글파일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써보고 정리해 놓은 한글파일과 비교하며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잘못알고 있는지 알고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며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 전공 교재에는 참고서나 문제집이 없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위와 같은 백지 공부법을 실행하다보니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린 동생이 있거나 꾸준하게 아이들과 봉사해본 경험이 없어서 유아들을 직접 오랫동안 관찰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영유아발달 수업을 통해 여러 학자들의 발달이론이나 아이들의 시기별 특징, 아이들의 발달 순서 등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을 실제 아이들의 모습에 적용해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나는 TV로 육아예능 프로그램들을 매우 자주 보는 애청자인데 영유아 발달 수업을 듣기 전에는 TV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딱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엽다 생각하며 봤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면서 전에는 이해가지 않던 TV 속 아이들의 행동의 이유도 알게 되고 아이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예로 들자면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잘 웃어주는 것을 보고 전에는 순한 아이라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유아발달 수업을 듣고 영아의 배냇웃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깨달았다. 또 '가자', '조용히 해야 해', '꼭꼭 숨어' 같이 자신의 생각을 모두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혼잣말을 아이가 자주 하는 이유는 아동심리학자 비고츠키가 제시한 혼잣말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조절을 위해서,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혼잣말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게 뭐야?", "왜?" 라고 묻는 것은 내 사촌동생들도 자주 할 만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너무 자주 질문을 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아동의 "왜?" 라는 질문은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거나 인과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혼잣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말을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영유아발달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을 보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 아이들의 상태나 마음을 잘 이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선 아이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몸소 깨닫게 되었다.

영유아발달수업을 들으며 우리학교의 5대 핵심역량 중 지성역량과 수행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아동의 행동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다. 참고서나 문제집, 정리노트 등 공부를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가 넘쳐났던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교에서는 전공교재와 강의만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전공책의 내용을 읽기만 했다면 점점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보고 계획하며 자기주도적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 학자들이 정의한 이론은 인터넷을 찾아보며 정보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영유아발달 수업을 듣고 느낀 것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기도 하고 때론 바보 같기도 한 존재라는 것이다.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표현하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나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보단 항상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느꼈다.

영유아발달 수업은 배우는 내용들이 모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할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한 수업이었다. 또 교재내용 외에도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실제 유치원에서의 활동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재밌고 기대되는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를 많이 보여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16

부족함이 없었던 수업

2020-1학기 장려상 / 실버보건학과 최민영

우선 이 강좌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1학기 동안 여러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 톤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 쏙쏙 박혀 수업에 집중이 잘되었고 ppt로 수업하며 핵심을 집어주시고 노트필기에도 적당한 속도와 유머가 저와 잘 맞아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비스 러닝 교과목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활동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어 혹시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대면 수업보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현장 활동 대신 어떤 수업을 진행하실지 궁금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만큼 저희와의 소통을 신경 써 주셔서 수업 진도도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수업 내용도 부족함 없이 알차고 풍성하여 수업 만족도가 높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이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흥미가 없어서 등의 이유를 알고 저 또한 봉사 점수를 채우기만 급급하였고 일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였다는 것을 반성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수업을 들은 다음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는 확실히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흥미가 생기고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치매에 대해 기억을 잃고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만 생각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할아버지가 치매를 1년간 앓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워낙 몸도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였는데 치매에 대해 배우면서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니라 '기억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고통 받는 병임을 알게 되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었고 아직 살아계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를 위해서 간호, 의사소통 방법, 대처요령, 예방법 등을 알게 되어 저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좋은 수업 방법은 Webex를 통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여 선배님들을 초대해서 작년에 현장 활동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생생히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이번에 활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고 그동안 물어볼 상대가 없어 혼자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는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하고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유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저희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연구하셔서 자원봉사 관련 스트리머와 전화 연결, 스트리머 형식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학교 탐방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석구석 탐방과 소개해 주시고 담당자분들과의 인터뷰와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전문가 OJT도 센스 있는 자막과 편집으로 처리하고 각자의 자원봉사 경험을 묻고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을 하며 저희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름과 얼굴, 특징을 미리 알고 계시고 신입생을 위해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도 주시며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제가 수업에 참여한 노력은 노트북과 컴퓨터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시청해도 가능하지만 제 스마트폰이 작아서 ppt 자료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3월부터 매일 근처에 사는 친척 집에 방문하여 수업을 들었고 그것도 나중에는 사정으로 불가능해지자 5월 근처 처음으로 피시방에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주위가 노랫소리, 말소리, 게임 소리에 시끄럽고 안이 담배 연기로 공기가 탁해 머리가 어지럽고 게임 등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곳에서 저 혼자 그것들을 정신력과 의지로 단단히 무장하여 힘들게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며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드디어 노트북을 사게 되어 집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학습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학원을 가거나 누군가 시켜서 한 공부가 크고 오롯이 혼자 한 적이 없어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는데 SOS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으며 제 학습 문제와 방안을 파악하며 저에 대해 뒤돌아보고 이제는 고치고 싶은 강한 마음으로 저는 미래보단 우선 현재부터 잘하기 위해 수업, 과제를 차근차근 우선순위와 시간을 계획적으로 세우면서 해나가니 조금씩 공부에 흥미가 붙이기 시작하면서 낮아져 있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학습법의 기본이 반복과 인지라고 생각하여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반복하여 읽으니 저절로 뇌에 인지가 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노트 공모전을 통해 모눈 노트 공부법을 참고하고 활용해서 줄 노트 때 보다 줄, 칸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도형과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고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과목 필기를 한 노트에 담아 보관과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나섬 나무 키우기를 통해 매일 식물에 물을 주며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고 나섬 인성 힐링 북을 통해서는 감사일지, 좋은 글귀 필사, 컬러링 등의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저도 모르고 있던 무의식의 선입견, 편견들을 갖고 있던 것에 놀라면서 부끄러웠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예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집중을 하지 못해 잘 듣지 않고 딴 짓을 많이 했었는데 흔히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 방식이 아니라 수업을 유쾌하게 이끌어 가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합쳐져서 이제는 의자에 전보다는 오래 앉아있고 수업 태도도 좋아짐과 같이 성적도 향상되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일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여 보람에 의미를 두는 것보단 당장 몸이 힘든 것에 초점을 두었고 자발성이 아닌 봉사 점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을 배우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겸손한 태도로 임하며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해 이해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니 원래 공감을 잘못해 기계적인 반응만 해와서 주변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씩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되면서 전과는 조금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 중 한 개인 인성역량 부분에서 하위 역량인 나눔과 섬김, 자아존중, 정직, 책임감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대상별 자원봉사활동 등을 배우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솔선수범하여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에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생각과 태도, 행동 특성으로 자신의 내적 동기나 욕구표현을 조절, 제한하여 개인이 사회·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인 글쓰기를 저는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글이 써지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라고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의 생각과 경험을 밤새우며 고민하고 글을 쓰니 확실히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 나오고 글은 쓰면 쓸수록 느는 것이 느껴져 장문의 글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글쓰기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17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의 목표를 세우자

2020-1학기 장려상 / 항공운항과 오현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성과가 좋지 않아 포기한 경험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필가 노만 V.필의 명언에 따르면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하고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다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였을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승무원의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항공 운항과를 진학하였고 그 중 객실 서비스 사례연구 수업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점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기내에서 기내식을 먹고 난 후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고 속이 안 좋아 보이는 승객에게 승무원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 학생은 약을 가져다주며 계속해서 승객의 컨디션을 확인해가며 돌본다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내가 승객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 자신이 먹는 약이 아닌 비행기에서 상비해 두고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약을 받았을 때 선뜻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대답은 이전과 같은가? 위의 사례는 객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약을 가져다주면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물론 약을 주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지만 이럴 때는 진저에일과 같은 음료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저에일에 그런 효능이 있는지 몰랐고 단순 약을 가져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내용이었다. 이렇게 객실 서비스 사례연구 수업에서는 승객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었다.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서비스를 하면 승객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있을 것이다. 기내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례로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기내에서 승객이 원하시는 비빔밥 기내식이 없을 경우일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다른 파트의 근무자에게 여분의 비빔밥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승무원을 위해 탑재되는 승무원용 식사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두 번째 식사에 그 승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승객을 위해서 승무원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승객에게는 조금 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내서비스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상황 따라 대처능력이 빛을 발하는 직업이니깐 한걸음 더 나아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적어도 나의 삼촌이자 이모이자 고모 또는 그들과 어쩌면 친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한다면 분명 이들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배움을 가지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와 함께 탑승한 모든 승객 분은 덤(1+1)으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바탕으로 서비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

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밝은 표정의 인사 두 번째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 세 번째 가족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과 배려이다. 승무원이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로 승객을 응대할 수 있어야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실 서비스 사례연구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승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책임과 업무에서 특히 서비스에 관한 사례를 더 알아볼 수 있었다.

웹 엑스 실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항공사 신입 승무원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과제인 제주 항공의 면접전형의 재주 캐스팅 1분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 전 스크립터를 제출하였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기소개 영상밖에 되지 않았다. 나의 소개를 한 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항공사에서 뽑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뽑게끔 하려면 영상을 어떻게 다시 계획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제주 캐스팅을 준비한 사람들의 후기들이나 예시 그리고 제주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 결과 3가지 요소로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는 수많은 경쟁자와 다른 나만의 개성과 특장점을 녹이자 두 번째는 나의 특장점이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끼와 열정을 영상에 녹이기 위해서 영상 앞에서 춤을 추며 나의 끼와 열정을 보여주며 시선을 끌 수 있게끔 하였고 그 뒤에 내가 생각한 제주노래자랑이라는 아이템이 제주항공사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제주항공사의 슬로건을 영어로 말하면서 마무리하였다. 교수님께 들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자기소개 영상이 아닌 내가 이 항공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컨셉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직접 영상 촬영과 편집을 다 한 후 웹 엑스 프로그램으로 동기들이 각자 만들어낸 영상을 다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수님께서는 영상의 내용이라던가 영상에서 추가했으면 좋았을 부분들을 세심하게 짚어주셨다. 또한 우리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며 서로의 영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다. 라디오 디제이를 컨셉으로 찍은 친구, 뉴스기자를 컨셉으로 찍은 친구,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객실 서비스 사례를 영상에서 녹여낸 친구 등 여러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내었고 나도 어느 부분은 배워야겠다던가 고치면 더 좋았을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화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더니 처음과는 다른 스토리로 완성도가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친구들과 평가 시간에는 내 영상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대면 수업보다 수업 직접 참여율이 낮아서 참여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객실 서비스 사례연구의 수업은 교수님께서 강의 내용만을 읽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국내 및 항공사의 인재상과 서비스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여러 항공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국내외항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항공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많은 국내외항공사를 다 찾아보는 것이 비슷한 슬로건이나 경영이념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나는 친구들과 각자 조사할 항공

사를 맡아서 공유하며 한글파일에 항공사별로 회사소개, 보유 비행기 기종, 대표 마크, 회사업적 등을 파트별로 정리하여 외웠더니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친구들과 조사한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면서 놓친 부분을 채워나가니 수업을 정리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이었다. 항공사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고 외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며 알아가니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하여 접근하고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이 수업을 계기로 나는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내가 부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하여 계획서를 써보았다. 항공사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토익점수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하여 항공사별로 노트에 정리하였고 다이어트와 토익 공부 등을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며 실천하고 있다. 1학기 수업이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격증 공부와 토익 공부를 하고 있고 매일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다. 항공사에서 추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되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잘 잡히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에서는 더더욱 다양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어떠한가 수업을 학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수업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려고 하고 노력한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이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많이 얻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천하려 큰 노력을 기울였다. 승무원의 직업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이를 수행하는 능력 또한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과 원활한 소통으로 나는 더욱더 승무원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생겼다. 객실 서비스 연구사례 이 강의명단을 보면 단편적으로 항공 서비스를 하면서 있었던 일만 책으로 공부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공사 면접에 대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영상을 틀어놓고 교수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수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수업에 주체자가 내가 되는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는 수행, 지성, 소통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내가 생각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의 행복한 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는 이 강좌를 꼭 추천한다. 전직 승무원이셨던 교수님께서 기내 안의서의 직접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니까 더 집중이 잘되고 내가 목표로 하는 진로에 대하여 수업을 들으니 동기부여도 더 잘되며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 수업을 듣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공사가 추구하는 것을 조사하고 내가 그 항공사의 이미지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이 강좌를 듣고 많은 것을 얻어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수업 외적으로도 교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항공사 준비를 앞두지 않더라도 서비스 업종을 꿈꾸고 있다거나 면접을 앞둔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입사 준비에 면접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도 면접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내가 진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해주기 때문에 교수님과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한다면 꼭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작은 것도 상관없고 너무 멀리 내다 본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도 상관없다. 그 방향에 가는 길이 즐겁다면 내가 세운 목표는 잘 세운 것일 것이다. 때론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공부 관련된 명언 중 “동물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바라는 부분이 진화되어 왔다. 말은 빨리 달리고 싶어 해서 빨라졌고 새들도 날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물갈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말이 될 것인지 새가 될 것인지 오리가 될 것인지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면 안 될 것 또한 없을 것이다. 먼저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 것으로 만들며 실천해 나가자!

18

꿈에서 현실 가능한 주거 수업

2020-1학기 장려상 / 가정교육과 이아름

주거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거와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주거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으로 HOME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특성에 따라 주거를 보는 시선으로 주택 생활환경, 근린 환경 범위까지 주거의 의미를 포괄할 수도 있다. 또한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화초, 사진,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자아 이미지의 확장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면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사회적 신분과 돈에 따른 주거의 크기, 구조 등으로 경제적·사회적인 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처럼 주거는 인간으로부터의 디자인, 사회 영역에서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주거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의 변화는 주거 공간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확대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파악하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며 이에 맞는 주거의 형태와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주거 원리’ 수업의 주된 목표이다. 이를 통해 주거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거 원리’ 수업은 시대별 주거의 형태 변화와 현재 주거의 가치, 유행, 선호도를 파악하고 나의 미래의 주거 조건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대별 주거의 형태는 급속한 변화를 이루어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등과 같이 동네 안의 또 다른 하나의 동네가 형성되는 추세이다. 각 형태의 주거 구역이 넓혀지고 있어서 미래에 내가 아파트에서 거주할 것인지 혹은 주택에서 거주할 것인지 주택 유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집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선택하는 시간도 있어 현실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주거학의 학문을 이해하고 배운다면 미래에 쾌적한 공간 속에 머물 수 있고, 주거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실제로 주거에 대한 중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수업이었다. 환경, 프라이버시, 개인 공간, 영역성, 과밀도, 문화, 디자인 등의 요소를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를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계획하고 적용하여 미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 의미 있는 수업이다. 특히 주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실내의 환경의 요소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 문화생활 환경, 실내디자인과 주거 공간의 배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열, 공기, 빛, 음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쾌적한 실내 환경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 원리’ 수업은 LMS를 활용하여 수업 녹화 영상을 보고 각 주제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녹화 영상은 교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이론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 PPT를 제작하여 각 주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YouTube와 TV 프로그램의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주제에 맞추어 쉽게 이해하고 주거의 요소들을 눈으로 관찰하기 편리하도록 노력하셨다.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이해도가 높았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수업 중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여 실시간으로 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수업의 PPT 내용과 영상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지,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욕구에 따른 개인 맞춤형 과제로 주로 주거를 간접적으로 설계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업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수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의였다. 집에서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학기 초반에 이유 없는 시간 미루기와 즉흥적으로 강의 듣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나태해진 나의 모습과 현실을 마주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생활의 패턴을 바꾸어 보자’고 반성하며, 그 이후로 대면 수업인 것처럼 계획을 구성하고 실천했다.

가장 먼저 수업에 참여한 노력은 수업의 차시만 맞춰서 수강하는 것이다. 수업 후 생각 정리, 내용 정리, 과제를 하여 원래의 시간표보다 넉넉한 시간을 두어 학습에 매진했다. 대신 다음 차시까지 미루지 않도록 수강하고 정리하였다. 전보다는 확실히 학습의 효율성은 높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는 수업 중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기록해 자신만의 답을 정리했다. 교수님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도 스스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교수님의 답안과 무엇이 다른지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스스로 수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세 번째는 학습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해 배운 내용을 정리했다. 마인드 맵 그리기는 원래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중 하나였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단어 혹은 내용, 이야기의 흐름 중의 필요한 단어와 의미 등 헷갈리는 내용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나만의 학습 방법으로 응용했다. 수업을 다 들은 후 1차로 마인드맵을 그려본 후, 1차 마인드맵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수업 중 필기한 것과 교재를 비교해보며 2차로 마인드맵을 수정하면서 한 번 더 정리했다. 네 번째는 한글파일을 활용해 서브 노트를 제작했다. 미래에 취업을 위해 대학 전공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공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교재의 내용을 찾는 것보다 간단하고 요약과 보충 설명도 추가하여 적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원리’ 수업을 수강하면서 변화된 점은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교수님의 질문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것을 적어 학습의 연장선을 그려 배움의 폭을 넓혀 나갔다. 또한 생각하는 힘이 변화되었다. 수업을 듣고 난 후 시험을 위한 단순 암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의 질문을 통해 내 상황과 입장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수업을 깊이 있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해 쉽게 외울 수 있었다.

‘주거 원리’ 수업은 배재대학교 5대 핵심 역량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라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과 태도, 행동 특성을 통해 자신의 내적 동기나 욕구 표현을 조절 및 제한하여 개인이 사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책임감과 자아 존중

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거의 형태 혹은 근린시설에 따른 이웃과 맺는 대인관계능력,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 등을 배우면 소통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과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가 흐르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면 감성 역량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smart home system으로 변화되는 주거의 시설에 맞춰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롭게 대안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지성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쯤 나만의 집을 설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여 도전적 추진력을 설계해봄으로써 자기주도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행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주거 원리' 수업은 '집', '주택', '주거'라는 큰 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는 주제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소재이고, 유익한 수업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교양 과목으로 충분히 어려움 없이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므로 주거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미래의 주거를 설계하고 싶은 사람이면 언제 들어도 좋을 강의이다.

19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인간이란 개체까지

2020-1학기 장려상 / 생명공학과 임수현

인간은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은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개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막연히 세포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것,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런 아주 당연한 개념만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세포는 그렇게 단순하고 작은 단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한계가 없는, 긁지 않은 당첨 복권과도 같은 존재이다. 현재의 인류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 매커니즘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만 세포와 염색체에 대한 정보는 그저 광대한 사막에서의 모래 한 주먹과도 같은 양이다. 그 말은 세포와 염색체는 인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긁지 않은 당첨 복권을 긁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또한 긁지 않은 당첨 복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긁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생명공학과에 진학했다.

'생명공학기초생물1' 이라는 과목은 인간뿐만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기초 단위인 세포부터 인간, 그리고 다른 개체들의 생명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세포의 정의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라는 뜻인데 기본 단위 속의 소기관, 그리고 세포 각각의 특성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개체로 뻗어나가는 생명체의 구성, 그리고 매커니즘의 순서로 생물학 자체를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1과 생명과학2를 공부할 때는 그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했다면,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좋아하는 과목을 재밌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알고 싶어서 책과 강의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온라인 개강을 하고 1,2주 정도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배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일반생물학의 서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다. 학기가 지날수록 아는 내용들이 심화되어 어렵지만 흥미롭고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더욱 커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강의에서 장점이자 강점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거의 모든 수업마다 과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과제가 많다는 것은 단점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 나는 그 정반대로 느껴졌다. 나는 오히려 그 많은 과제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들은 다 그날의 강의 내용에서 파생되거나, 강의에서 나온 것들의 핵심 부분만 짚어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됐는데, 나는 그 과제를 통하여 그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볼 수 있어 시험 전에 한 번 훑어보기도 좋았었다. 과제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LMS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할 수도 있어 좋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직접 만들어놨던 부교재와 필기본, 분석해놨던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리고 학기 말에 심화주제발표를 할 때 썼던 리포트와 발표문을 참고하면서 과제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훨씬 생산적이고 자기계발적인 것 같아 더욱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LMS 인터넷 강의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며 스스로 시간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이 받는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초생물1' 이라는 강의는 LMS 강의 중간 중간 우리가 구두로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

주시는데 3D 모델링이 되어있는 영상을 대부분 가져와주셔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문장이 종결될 때마다 영상을 멈추시고 해석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고 URL링크까지 같이 올려주셔서 과제를 할 때 정말 유용하고 유익했다.

과제를 하기 전, 나는 과제에 해당되는 강의를 두 번씩 들었다. 처음에는 필기만 하며 들었고, 두 번째는 필기본과 전공책, 그리고 강의록을 함께 보며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모두 체크하는 방법으로 들었다. 하나의 강의를 두 번씩 들으니 과제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과제 또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되던 것을 내주셨기 때문에 과제를 확인하고, 강의를 들으며 과제의 전체적인 테두리를 잡는 것 또한 수월했다. 대부분의 과제는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는 것이었고 나는 주로 정의, 개념, 순서 및 종류, 구성 그리고 특이사항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심플한 것이 리포트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작성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자율과제나 발표수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발표수업 때 다뤘던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볼 수 있어 더욱 재밌게 공부와 과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강의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오페론이 언급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배웠던 생명과학에서는 그저 전사, 번역 과정을 통하여 DNA가 복제되어 개체가 종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저 나는 전사, 번역을 통하여 개체가 종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생명체 내에서 하나의 매커니즘이 일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소기관과 분자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분자들을 복제하는 것에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작고 미미한 매커니즘에 의해 생명체의 물질대사가 실현되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체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작지만 커다란 기적처럼 느껴졌다.

위의 강의를 통하여 나는 핵심역량 중 지성역량, 수행역량을 이 강의로 키울 수 있었다.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이 습관이 더욱 강화된 것 같다. 강의에서 가르쳐주시는 전공 지식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엮고, 거기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술지나 백과를 찾아보는 또 다른 습관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습관들 때문에 실행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학술지와 백과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은 강의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빨리 답변을 해주셔서 궁금한 것을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 학생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다.

이 강의는 한 가지 역량이 따로 계발되는 것이 아닌, 융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강의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며 기를 수 있는 지성역량, 그리고 공부와 과제를 하면서 생기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답을 찾는 수행역량을 이 강의를 통해 함께 강화할 수 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생명체의 매커니즘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 번 정도씩 들어봐도 좋을 강의라고 생각한다. 가볍게 듣지는 못하지만 생물학을 깊이 파고들어 부족, 부실하지 않은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2020-1학기 장려상 / 심리상담학과 유시현

‘집순이’ 집 밖의 활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 저 단어를 들었을 때 난 내 일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었다. 누가 나를 관찰하고 써둔 듯 완전히 날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집순이’ 인 것을 모른다. 어렸을 때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늘 엄마 뒤에서 숨어 말 한마디 못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다. 그대로 자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가족을 제외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부끄럼이 많은 나는 말 한마디에도 너무 힘들었지만, 늘 친구가 많은 아이에겐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나 자신은 미움 받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과정과 함께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친구를 사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고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선 친구들에게 미움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춘기인 나에게 내성적인 성격은 사회성 결여라는 낙인을 찍는 느낌이었고 그 후 나는 친구들에게 더 나서면서 더 많이 웃고 우스꽝스러워 졌으며 억세고 당찬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진짜 나의 내성적인 면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먼저 말 걸고 다가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 늘 밝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는 나에게 친구들의 고민을 털어두는 것은 자연스러웠고 나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다. 나도 언젠가 진지하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날 걱정 없는 아이로 생각했다. 늘 쾌활하고 밝았기에 상처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나의 내성적 성향과 소극적임 그리고 미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학교생활을 했고 다행히 별일 없이 졸업 후 난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나의 진짜 걱정은 대학입학부터였다. 대학교라는 장소의 의미는 훨씬 새로워지고 넓어질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았고 나는 항상 밝은 사람으로 버티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그런데 걱정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학 입학도 전에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 퍼졌다. 날이 갈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고, 학교에 갈 수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입학 연기, 사이버 강의 시작으로 안타까움도 잠시 모두가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망이 아우성칠 때,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만나지 않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나는 안정감을 되찾았다. 이유도 모른 채 길어진 방학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개강 후 사이버 강의가 시작되었다. 심리상담학과였던 나는 전공과목으로 ‘대인관계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들을 LMS 과제란을 통해 받으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내가 느낀 안정감과, 인간관계의 피로감에 대한 질문을 제출했고 교수님은 나를 포함한 학생들의 고민으로 대인관계 심리학 수업 중 ‘번 아웃(burn out)’특강을 해주셨다. 번 아웃(burn out)이란 어떤 분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기화 하면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며 나는 특강 이전에 직장인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번 아웃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

게 그 특강은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돼 주었다. 즉 나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번 아웃된 상태였다. 나는 즐겁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만났던 거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닌 체력 소진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기에 대학 생활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까지 나에게 찾아온 것이었고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화 되어 나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무력감과 허무감이라는 번 아웃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코로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쉴 시간이 생기면서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 집순이 '라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관계 무력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 특강 이후 나는 마치 어딘가가 아파서 끙끙 앓고 불안해하다가 우연히 간 병원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게 되어 이제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우연히 명의를 만난 나는 그 수업이 자연스럽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 수업이 나에겐 감추고 살았던 내 내성적인 성격을 다시 드러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까지는 내 '집순이' 자아, 집에서의 시간이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겹지만, 내성적 성격이 아닌 밝고 쾌활한 가면을 쓰고 생활하며 나는 내성적인 나와 마주할 일을 피하는데 바빴다. 사실 나는 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또 다른 나와 마주치기 시작한 것은 수업마다 나오는 자가진단 질문과 심리 검사였다. 인간관계를 배우던,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배우든지 무엇을 배우든 간에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늘 있었다. '부모님과는 잘 지내고 있나요?', '친한 친구는 많은가요?' 등의 가벼워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많았다. 질문을 수업 때 받고 수업내용을 떠올리면서 내가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다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거나, 친한 친구가 많이 없다면 나는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질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너무 새로운 관계 맺는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나에 대입해 생각해보고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내가 이 수업의 좋은 예제, 문제가 되어 공부하니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내용을 학습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검사를 하며 더 나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심리검사가 조해리라는 사람이 만든 마음의 창이라는 심리검사이다. 그 심리검사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보여주고 어떤 면을 변화시키거나 노력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심리검사이다. 나의 경우는 개방형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활달해 보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외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인데, 미지의 영역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결과를 듣고 나의 미지영역은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 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심리 검사의 결과가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런 성격을 원하는 마음에 결과가 나온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스스로 가지며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심리 검사를 나에게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끼리 모여 해보고 서로의 결과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구들과 자신에 대해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서 내가 상대한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도 성격유형이나 검사 결과 등에 관해 이야기 한 경험으로 잘 풀어나가기도 했다. 꼭 친구나 가족과 심리검사를 공유하지 않아도 검사를 하면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다양한 인간관계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늘 피로했던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도 했다.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모르는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지만, 숨겨두었던 '집순이' 자아를 꺼내 혼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나 자신도 인간관계에서 여유를 찾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내 발목을 항상 묶어온 밝은 사람을 포기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었고, 또한 늘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던 친구들을 보며 이전에는 열등감이나 부러운 마음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나에 대해 알아가고 친구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리고 성숙한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그들에게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단 나와 그들의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청소년기에 겪었으면 지금은 지혜롭게 나의 여러 정서가 조화되어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잘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 공부했던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른 인간관계와 연계 시켜 청소년 문제를 생각했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자의 특질보단 함께 어우러짐을 원했던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생긴 경쟁 중심 사회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기 성장은 아동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커져도 받아들이는 것은 입시 이후가 되어 버리는 현상도 인식하니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었고 학습보단, 마음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결국 지식의 풍요로움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안타까움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목표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들으며 받은 나의 가장 큰 깨달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나를 희생하고 숨기고 갈아 넣는 인간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내 정서에 관해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나를 사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싶었다. 그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진 가장 큰 발전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지구가 갑자기 멸망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그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기억이 무색하게 다시 행복해지기도 할 것이다. 관계를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수업을 떠올리고 나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와 상대의 행복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